

호반
구분

Vol. 68 2025 가을과 겨울 사이

로컬리티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청결한 세상

Editor's Letter

우리의 조각들

조각보는 작은 형값 조각을 이어 만든 보자기다. 천이 귀했던 시절에 옷을 짓고 남은 조각들을 모아 알뜰히 활용했던 생활의 지혜로부터 시작된 조각보는 이제 섬세한 아름다움을 가진 예술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사각 도형들이 가지런한 것은 궁중이나 사대부 집안에서 만든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서민들이 주로 만들었기에 정형화된 모양보다는 제멋대로 잘린 천을 자연스럽게 이은 게 특징이다. 소재도 무늬도, 심지어는 크기도 다른 여러 개의 천 조각을 모으면 하나의 색다른 그림이 만들어진 다. 무작위로 이어 붙인 조각의 모음이지만 멀리서 보면 제법 그럴듯한 한 폭의 작품이 된다. 보는 맛 뿐인가. 저마다의 개성대로 이어 붙은 조각들은 물건을 감싸기에 알맞은 포장지가 되기도, 잠자리를 덮히는 이불이 되어주기도 한다.

각기 다른 천 조각이 모여 만들어진 조각보는 우리 민족의 삶을 닮았다. 즐겨 먹는 음식도, 쓰는 말투도, 매일 보는 풍경도 조금씩 다른 각지의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 그럴싸한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말이다. 획일화된 미의 기준은 이런 개성 앞에서 맥을 못 춘다.

드높던 해가 열을 식히며 낮이 조금씩 짧아지는 계절, 《화분》에서는 화성특례시만의 색깔을 모아 소박한 조각보를 만들었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의 예술인 지원 사업 '제로베이스X화성'은 화성특례시에서 살아가며 일상의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작가들을 위한 응원을 따뜻한 분홍색으로 엮어내고, 신인 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2025 라이징스타를 찾아라'는 맘껏 내지르는 청춘의 푸른색으로 담긴다.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재즈와 클래식의 선율은 깊이 있는 자줏빛으로, 화성특례시의 시간을 담은 역사박물관과 독립운동기념관은 셀 수없이 많은 갖가지 색으로 이어진다.

가로수에서 저마다 떨어진 다양한 빛깔과 모양의 낙엽이 거리를 채우며 이 계절의 색을 만들 듯, 가을과 겨울 사이 《화분》에 담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다채로운 색과 질감을 더할 수 있길 바라본다.

《화분》 에디터 차예지

표지 이야기

장바구니에 맘에 드는 물건을 담듯
이번 호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담았습니다.
그림 속 다양한 소재처럼 하나의 단어, 이미지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지역, 화성특례시를 표현했습니다.

《화분》 표지 작가 5unday(@5unday.seoul)



2025 가을과 겨울 사이 Vol. 68

발행처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
T. 031-8015-8112
hcf.or.kr

발행인

안필연

편집본부장

정지영

편집팀장

남수림

기획

원예빈

편집·디자인

플러스81스튜디오
T. 02-542-0810

ISSN 2671-6445

《화분》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발간하는 계간 문화·예술 교양지입니다.
화성특례시 내외의 다양한 문화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담은 그릇이 되고자 합니다.

《화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게재된 내용의 일부는 외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재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화분》은 재생원료를 배합하여 만든
친환경용지를 사용합니다.

Contents

INTRO		화성특례시와 당신의 인연을 소개해주세요!	6
THE 담다	Focus	제로베이스에서 시작된 화성의 새로운 예술 실험 제로베이스X화성	12
	Interview 1	음악으로 정의하는 천 개의 파랑 ‘2025 라이징스타를 찾아라’ 우승팀 블루 이즈 낫 블루	20
	Interview 2	재즈, 가장 자유로운 언어 트럼펫 연주자 옴 반 라인	28
	Interview 3	건축과 음악이 만들어낸 울림 남양성모성지 신부 이상각	36
	Talk 1	전시를 쉽게 즐기는 방법	42
	Talk 2	친구의 눈에만 보이는 홍화정의 에세이 툰	48
	People	시민들이 바라보는 화성특례시는?	54
THE 가다			
THE 가다	Walk	화성특례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하루 화성시역사박물관,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58
	Travel	발안만세시장을 맛있게 즐기는 31가지 방법 발안만세시장	66
THE 하다			
THE 하다	Preview 1	예술과 더 가까이 만나다 화성 아트버스 & 화성특례시 서울로 365	74
	Preview 2	공연, 일상 그 이상의 감상 화성시문화관광재단 10~12월 시즌 공연 프리뷰	84
	List	나, 너,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지다 화성특례시 생활문화동호회 ‘깡깡아리랑’	90
	Culture & Issue	문화소식, 문화캘린더	98
Letter		독자엽서	108
Place		배포처 및 구독 안내	110

화성특례시와 당신의 인연을 소개해주세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지역 사람들이 내뿜는
각각의 색이야말로, 그곳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병점역 근처, 가장 '화성스러운' 사람들을 만났다.



병점역 앞,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기는 떡볶이집에는 푸근한 미소로
손님을 맞는 주인장이 있다. 종일 서서 하는 일이 힘들지 않을 리 없지만,
모든 건 마음 먹기 나름이다.

“집에 있으면 뭐 해. 나와서 일하다 보면 오다가다
인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사람도 만나고 좋지.”

이이덕



하교 시간을 맞은 아이들이 쪼르르 노란 버스에 탄다.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범 최병현 씨는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것을 화성특례시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는다.

“사범으로 일한 지는 4~5년 정도 됐어요.
아이들을 좋아해서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최병현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택시 기사 김창수 씨.
벌써 25여 년째 일하고 있다. 무사고를 인증하는 마크를 달고,
오늘도 도로 위를 바쁘게 오간다.

“나를 찍을 게 뭐가 있다고…
그럼 사진 찍는 데 3,000만 원 줘.”

김창수



화성에 산 지 40년이 넘었다는 어르신.
제조업을 하다 지금은 병점에서 농업인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긴 시간 동안 화성특례시의 역사를 지켜본 시민으로서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
“교통 편리하고, 복지관도 잘 되어있어 살기 좋은 곳이지만,
지역마다 균형 잡힌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영희



쑥스러운지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려는 아들을 붙잡고
카메라 앞에 선 시민. 웃는 얼굴이 똑 닮은 두 사람이다.
“화성특례시에 산 지 5년 정도 되었는데 여긴 아이들과 할 것도,
갈 곳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유혜림

제로베이스에서 시작된 화성의 새로운 예술 실험

제로베이스X화성

그림을 잘 그려내는 것이 작가의 첫 번째 목표라면, 누군가에게 작품이 닿는 순간을 마련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일 것이다. 이 지점이 작가들에게는 늘 숙제와도 같다. 이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는 관내 예술인의 작품을 서울옥션과 연계해 작품 유통 기회를 마련하는 프로젝트를 시도했다.

정리 및 인터뷰 차예지(편집실) 사진 김성재(싸우나스튜디오)



왼쪽부터 윤은주, 김현희, 박나은, 서정연, 권은솜, 황정경, 박은주, 아래 진현진



지역 작가와 시장을 잇다

‘제로베이스X화성’은 서울옥션과의 협업을 통해 화성 특례시에서 활동하는 청년·지역 작가들에게 실질적인 작품 유통 기회를 제공하고, 전시와 경매를 연계한 시장 진입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먼저 공모를 통해 권은솜, 김현희, 박나은, 박은주, 서정연, 윤은주, 진현진, 황정경 작가를 선발했다. 이들의 작품을 모아 동탄복합문화센터 내 아트스페이스와 서울옥션 강남센터에서 두 차례 프리뷰 전시를 진행했다.

이들 작가의 작품은 서울옥션 온라인 경매 플랫폼을 통해 실제 유통으로 연결되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지난 7월 23일 진행된 온라인 경매에는 총 116명이 참여했으며 그중 화성특례시 거주자는 11명으로, 지역 기반 작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낙찰 총액은 3,595만 원이며 참여자 116명이 총 621회 응찰에 참여했다.

첫 경매, 낯설지만 값진 경험

이번 사업을 통해 선발된 8명의 작가가 모여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작가들은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과 결과에 만족하며 뜻깊은 경험이었다는 데 마음을 모았다.

황정경 작가는 “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니 믿고 참여하게 되었다”며 경매에 대한 이해나 정보 없이 시작했던 터라 모르는 것도 많았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권은솜 작가 또한 그에 공감했다. 모르는 것이 많아 담당자에게 많이 묻기도 했으며, 경매 사이트의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작가와 작품이 어떻게 노출되는지 배웠다고 말했다.

첫발을 내디딘 ‘제로베이스X화성’

다음을 향해

이번 ‘제로베이스X화성’ 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앞으로의 예술가 지원에 있어 재단이 고민해야 할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

우선 이번 사업은 경매에 앞서 전시를 통해 작품을 직접 볼 수 있는 시간을 두었는데, 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공간에 대한 고민이 컸다. 어디에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은 없을지에 대한 고민이 그것이다.

이번 전시가 진행된 아트스페이스는 다양한 시민들이 오가는 곳으로, 그만큼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전시를 찾고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반면 외부인의 접근은 쉽지 않은 곳이기도 근처의 대형 병원이나 기업과 연계해 새로운 공간에서 전시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더해졌다.

또한 사업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이번 ‘제로베이스X화성’은 시작가 0원에서 출발해 구매자가 직접 작품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작가로서는 평소 판매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

김현희 작가는 “0원에서 시작하는 방식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오히려 너무 비싼 가격으로 책정돼있을 경우 구매자로서는 접근이 쉽지 않기에 장단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다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된다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제 첫발을 내디딘 사업인 만큼 많은 고민을 통해 아쉬운 점을 개선하고 더욱 성공적인 다음 스텝을 내디딜 수 있길 바라본다.



권은수 <From X to X>, 2024
일상 속 자연을 포착해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어무는 초현실적인 회화 작업을 하고 있다.



황정경 <SALT_series no 21>, 2024
우리의 불안과 공포를 몰아내 주는 공작을 주제로 그림을 그린다. 최근에는 소금을 재료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담은 작업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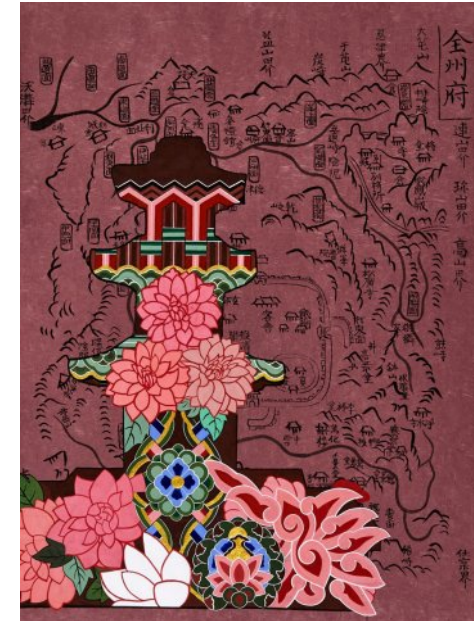
김현희 <여름밤>, 2022
자연에서 들리는 소리를 이미지로 재해석해 주변의 세계와 소통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박은주 <숲의 서재>, 2020
가족의 사랑을 '말'이라는 매개체로 표현하는 민화 작업을 하고 있다.



박나은 <방어기제>, 2025
'집'을 주제로 사람들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진전진 <To Freely Bloom 1>, 2024
'타'를 주요 소재로,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전통 재료를 이용해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윤은주 <여름철 한모금>, 2024
카페라는 공간에서 느껴지는 일상 속 쉼, 휴식을 주제로 도시의 여유를 담은 작업을 하고 있다.



서정연 <도원수호대>, 2025
동양적 유토피아인 '도원'을 주제로 삼아 사물과 풍경에 이야기를 녹여내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로컬과 예술을 바라보는 여덟 개의 시선

이번 사업에 참여한 여덟 명의 작가들은 모두 화성특례시에 거주하며 이 지역의 로컬리티를 누구보다 면밀히 관찰하는 사람들이다. 이들과 이번 사업 참여 소감은 물론, 평소 작품세계와 화성특례시의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Q. 이번 사업 참여, 작품 유통을 통해 얻은 새로운 시각이나 변화가 있을까요?

박은주_ 개인적으로 좀 더 발전해야겠다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생각하는 작품의 가치와 시장의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더 노력해야 할까, 근데 또 노력한다고 잘 되는 걸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황정경_ 시장에 노출된 거잖아요. 전에는 내가 좋아서 한다는 마음이 좀 있었다면 이제는 외부의 평가를 나와 무관하게 생각할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자연을 주제로 소금을 가지고 물감이나 먹에 섞어 작업하는데, 소금이라는 물질에 대해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했는가 하는 궁금증도 있고요.

박나은_ 화성특례시 안에도 이렇게 다양한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경매라는 걸 사실 말로만 들어봤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몰랐는데, 실시간으로 가격이 매겨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세상이 있구나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됐죠.

Q.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된 거네요. 작업하면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문화재단에서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윤은주_ 작업실에 대한 고민이 커요. 레지던시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 안에는 한 군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진입장벽이 좀 있어서 작가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황정경_ 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 주시지만 사실 작가가 작품을 판매에 연결시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판매 루트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준다면 감사할 것 같아요.

Q. 작가에게 사는 곳은 영감을 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작가님이 생각하는 화성특례시의 로컬리티는 어떤 모습인가요? 또 그런 특징을 작품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요?

김현희_ 바다와 습지가 있는 지역이라 그런 부분을 많이 탐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동탄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지만 공원도 많아요. 멀리 가지 않고도 접할 수 있는 자연이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다양한 소리가 혼합되는 곳이죠.

진현진_ 용주사에 있는 오층 석탑을 용주사 창건 설화를 담아 작업한 적이 있어요. 이 지역에는 문화유산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가봐야 할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아직 많아요. 용건릉은 정조의 효 사상을 중심으로 다룰 수 있고, 제암리의 경우는 희생이나 의지와 같은 키워드를 담아 표현할 수 있겠죠.

권은숨_ 저는 특히 동탄을 보면서 '길들여진 자연'이라는 말을 생각해봤어요. 자연이 남아있지만, 한편으로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가 있고, 자연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모습들이 저한테 영감을 줘요.

박나은_ 그림을 그릴 때 환경적인 특징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의 특징도 중요하게 보거든요. 신도시 근처엔 아이들이 많지만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연령대가 달라지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제 작품의 주요 주제인 '집'으로 형상화한다면 한 집 안에 여러 가지 모양의 창문이 있는 모습일 것 같아요.

박은주_ 17년 정도 여기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을 볼 때도 아이들을 위주로 시선이 가요.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니 모든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란도나 호접도 같은 그림이 어울릴 것 같아요.

서정연_ 제가 곰돌이를 그린 건 제 유토피아를 흡수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해서였어요. 그리고 그걸 전달할 때 장벽을 낮출 수 있는 게 귀여움이라고 생각한 거죠. 귀여움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잖아요. 조선만의 미감이나 정서를 곰돌이로 담으면 아이들은 물론 부모님들도 좋아할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요.

윤은주_ 최근 봉담읍에 있는 박봉담 카페를 갔어요. 커피와 전통주, 스마트팜까지 함께하는 곳이라고요. 건물도 전통과 현대가 함께 있는 느낌이고요. 아주 인상 깊어서 그 공간을 어떻게 그릴까 연구 중이에요.

황정경_ 서해로 가는 길이 이미지적으로 많이 와닿아요. 도시에서 논밭과 바다로 이어지는 모습이요. 특히 제부도는 바닷길이 막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롯이 자연만 남는 시간이 되죠. 아파트에만 살면 자연에 대한 생각이 잘 안 드는데 이곳은 차를 타고 조금만 나가도 그런 곳이 보이니 새삼스레 우리와 자연이 서로 잘 살피야 하는 관계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Q. 어떤 작가로 남고 싶으세요?

박은주_ 민화를 고리타분한 그림이 아니라 서양화 못지않은 회화로 인정받을 수 있게 이끌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진현진_ 전통과 문화가 계승될 수 있도록 과거와 현재를 이어줄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윤은주_ 꾸준히, 앨리스 달튼 브라운처럼 86세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며 건강하게 그림 그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서정연_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스스로 치유 받거든요. 제 그림을 보시는 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현희_ '김현희 작가 그림을 보면 편안하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의 나무, 풀의 소리를 들으면서 편안함을 느낄 때처럼요.

박나은_ 재밌는 작업을 하는 작가로 남고 싶어요. 그리고 개인전을 열 때마다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요소가 있게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계속 소통하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권은숨_ 자연의 다양한 장면과 풍경을 담을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고, 오래오래 작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황정경_ 어디서 읽은 문장인데 '개인 서사의 중요한 점들이 어느 순간 연결되어서 하나의 자존을 이루는 별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저 역시 개인적인 경험을 담아 작업하지만 그게 지속되어 하나의 자존적인 별을 이루고 그렇게 되면 작업 안에서도 어떤 본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작가가 되면 성공한 게 아닐까 해요.

음악으로 정의하는 천 개의 파랑

‘2025 라이징스타를 찾아라’ 우승팀
블루 이즈 낫 블루

신인 뮤지션 238팀이 지원하며, 역대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2025 라이징스타를 찾아라’에서 블루 이즈 낫 블루가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무대를 수놓은 에너지와 강렬한 패기가 담긴 음악으로 이제 막 발을 내디딘 그들. 끝없이 번져가는 청춘의 물결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글 차예지(편집실) 사진 박시홍(싸우나스튜디오)



왼쪽부터 김병연, 신철환, 조수연



합주실에서 세월이 느껴지네요.
사용한 지 오래된 곳인가요?

세 분은 서로 어떻게 알게 된
사이예요?

서로 다른 배경에서 만났다면
서로의 음악 취향이나 주 장르 등이
다를 수 있을 텐데, 작업을 할 때
어떻게 맞춰나가요?

밴드 이름인 '블루 이즈 낫 블루'는
무슨 뜻인가요?

철한 _ 여기가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쓰시던 곳
이예요. 젊을 때 음악을 하셨거든요. 혼자 쓰기엔 좀 과해서 어떻게 할
까 했는데 이렇게 팀이 생겨서 잘 쓰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사진이 아
버지 20살 때예요.

수연 _ 병연이와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고, 철한이와는 군대에
서 만났어요. 제가 섭외해서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병연이는 이 친구
가 음악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와 알던 사이였고 철한이는 예전부터
밴드 활동을 많이 했던 친구라 선뜻 함께해줬어요. 공연할 때 기타와
베이스를 맡아주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은 객원이지만 멤버처
럼 저희를 도와주는 친구들이예요. 여기서 같이 연습도 하고요.

수연 _ 밴드를 처음 기획했을 때부터 콘셉트를 청량한 이미지로
잡았어요. 시작할 때 그렇게 정해놓으니까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밴드
색에 맞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맞춰간 것 같아요.

병연 _ 저는 펑크랑 R&B 쪽을 많이 했었는데, 밴드 음악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곡을 저희 안에서 쓰다 보니 자연스레 서
로의 색이 곡에 잘 묻어나는 것 같아요.

철한 _ 개인적으로는 올드팝을 엄청 많이 듣고 지냈는데, 드럼은
특성상 음악의 전반적인 것을 다 아우를 수 있어야 해서 음악적으로
부딪치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다만 제 개인적 취향을 나중에 앨범
에 한 번쯤 넣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병연 _ 청량한 이미지로 밴드를 만들자고 얘기했던 터라 그런 콘
셉트에 어울릴만한 이름이 뭐가 있을지 고민했어요. 챗GPT한테도 물
어보고요, 블루에 우울하다는 의미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는
빠져는 뜻에서 '블루 이즈 낫 블루'라고 지었어요. 줄였을 때도 예쁜 것
같아요. '블낫블'.

철한 _ 후보에 '조수연 밴드' 이런 것도 있었는데(웃음). 블낫블보
다 나은 게 나오지는 않겠다 해서 그걸로 지었어요.

수연 _ 저희 중에 병연이가 가장 어려서 젊은 감성을 믿어보자,
했죠.

청량하고 밝은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이름이네요. 데뷔곡 ‘파라다이스(Paradise)’도 청량감이 느껴지는 곡이죠. 애니메이션 주제가처럼 벅차오르는 느낌도 있고요.

공연 영상을 찾아보니 팀명과 같은 제목의 곡, ‘Blue is not blue’도 좋던데요.

여러 무대와 경연 경험이 있는데,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수연_ 그 곡은 제가 트랙 작업을 주로 하고 병연이와 멜로디 작업을 같이 했고요. 편곡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작업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애니메이션 주제가 같은 느낌이 안 났으면 해서 고민했어요. 근데 병연이가 “형, 그냥 해보세요. 제가 잘 불러볼게요”라고 해줘서 그대로 했더니 너무 잘 불러준 거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와서 애정이 많이 가는 곡입니다.

철한_ 공연할 때 첫 곡으로 많이 부르는 노래예요. 각자 멤버 소개도 들어가 있고.

수연_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필살기를 초반에 다 보여주자 이런 느낌이에요.

병연_ 그렇게 와다다 보여드리면 관객들 반응도 좋고 확 몰입해 주시는 게 느껴져요.

수연_ 저는 남원에서 열렸던 춘향제 밴드 경연대회가 기억에 남아요. 그 당시 팀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준비가 완벽하다고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결선까지 올라갔는데,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팀의 사기가 올라가는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울산 전국 거리 음악 경연대회에서 수상했거든요. 춘향제 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대회에서 수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병연_ 울산 경연대회 때를 기점으로 팀의 컬러라든지, 무대 레퍼토리 같은 게 굳어지는 시기였다고 생각해요. 무대 위에서 이렇게 팀원들과 호흡하면 좋은 시너지가 나오는구나 하는 걸 느꼈고 뭔가 갈피를 잡게 됐던 거 같아요. 형들한테 얘기한 적은 없지만... 저한테는 그런 경험이었어서 기억에 남아요.

철한_ 저는 가장 최근인 ‘라이징스타를 찾아라’가 제일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얘기한 대회들 말고도 다른 여러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다 겪고 나서 얻은 성과니까요. 이번 무대가 저희가 가장 도파민이 터진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수상을 안 해도 괜찮겠다 싶을 만큼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결과까지 좋았으니 앞으로 이번 수상을 계속 떠올리면서 작업할 것 같아요.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엔진을 바꾼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라이징스타를 찾아라’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그리고 이번 대회가 어떤 경험이었나요?

참여한 팀들 중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발표 순간에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나요?

수연_ 이 대회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작년 우승팀인 ‘몽돌’에 지인이 속해 있거든요. 그 형이 너희가 이 대회에서 수상한다면 정말 좋은 기회고, 이걸 바탕으로 너희 팀 뿌리를 뽐어나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말해줬어요. 그래서 무조건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참여 팀에 부스도 내주셔서 굿즈도 처음으로 만들어봤어요. 무대에서는 ‘키타(keytar)’라고 키보드와 기타가 합쳐진 악기를 쓰기도 했죠. 여러모로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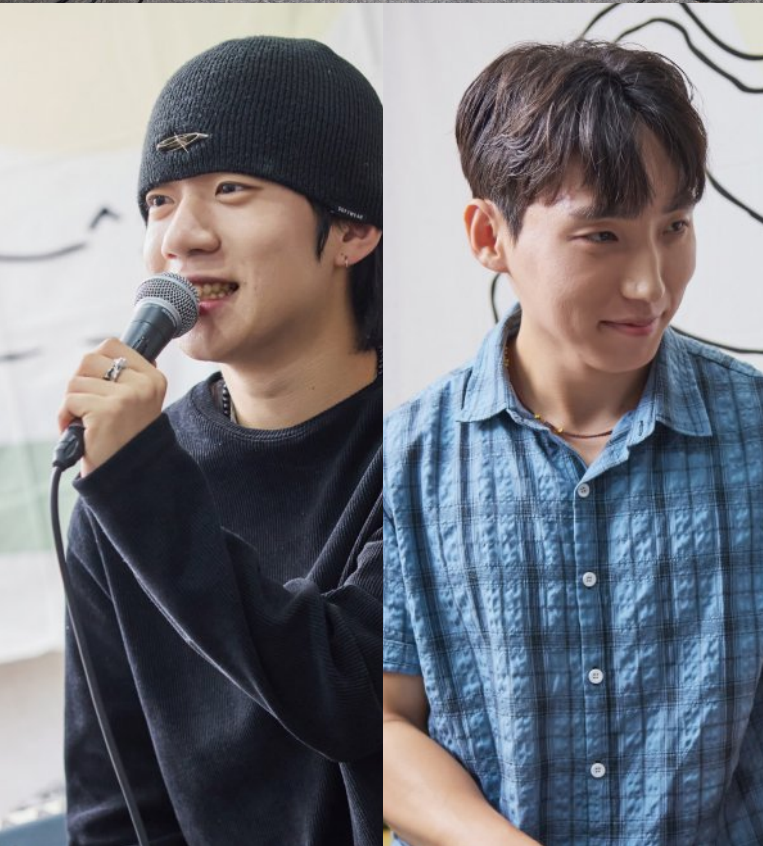
병연_ 이 대회는 밴드 활동을 오래한 분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 우리가 뭘 보여줄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어요. 저희 음악에 힙합이 살짝 섞이기도 해서 그런 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편곡도 하고, 관객이 많은 공연이라 퍼포먼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수연_ 경연에서는 저희 노래인 ‘갯 아웃(Get Out)’과 크러쉬의 ‘러시 아워(Rush hour)’를 불렀는데요. 갯 아웃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에 적합한 곡이었고 러시 아워는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합주했던 곡이라 편곡해서 무대에서 멋지게 보여주자고 얘기했었습니다.

수연_ ‘다행이다’라는 생각이요. 제가 리더라서 책임감도 있고, 뭔가가 잘 안되면 제 탓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우승으로 멤버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뭔가 증명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도와주는 객원 친구들에게도 챙겨줄 게 있어야 하는데 상금도 있어서 그 부분이 해결됐으니까요.

병연_ 싱글 음원을 내고 참여했던 큰 경연이었는데 앞으로 밴드의 발걸음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뽐어나가면 좋을지 스스로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큰 경연에서 많은 관객과 호흡하고, 심사위원들께도 인정받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괜찮은 음악을 하고 있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분 좋고 감사했어요.

철한_ 음악은 확인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중의 평가가 저희 생각과 다르면 방향을 바꿔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중 평가 점수만 봐도 너무 잘 나와서 만족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음악성을 확인받는 기회였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문화재단이나 공공의 영역에서 해줄 수 있는, 신인 음악가에게 꼭 필요한 지원은 어떤 걸까요?

음반 발매나 공연 등 앞으로 계획된 활동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블낫블만의 매력과 음악 색깔을 정의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

수연 사실 앨범 발매나 활동에 있어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지원이 가장 든든한 것 같아요.

병연 그리고 저희는 무대에 서는 직업이다 보니 결국에는 그런 노래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야 활동을 계속할 동기가 될 것 같아요. 무대에 설 기회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연 감사하게도 이번 '라이징스타를 찾아라' 우승 이후 인터뷰나 기획 공연 참여 등 연락이 와서 그걸 우선으로 하고, 조만간 앨범 발매 계획도 있어서 그 작업을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말이나 내년에 단독 콘서트를 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수연 '우리 안에 있는 파란색을 다양하게 정의하는 노래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란색이 가진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는 팀이고 싶어요.

병연 무대를 보거나 노래를 들었을 때 저희만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온몸으로 느껴지는 에너지를 담은 음악을 하는 팀이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철환 멤버들과 음악을 할 때 항상 '파도'같다고 생각해요. 파도는 잔잔한 것도 있고 서핑할 정도로 기분 좋은 파도도 있고 모든 걸 다 덮치는 센 파도도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종류의 파도처럼 여러 색의 음악으로 사람들을 휩쓸리게 하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병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팀이고, 아직 해야 할 것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바빠질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생각했던 것들을 잊지 않으면서 즐겁게 음악할 수 있는 블낫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환 이야, 네가 어른이다.

수연 우리 막내가 기특해요.

블루 이즈 낫 블루의
'2025 라이징스타를 찾아라'
공연 영상



재즈, 가장 자유로운 언어

트럼펫 연주자 읍 반 라인

네덜란드에서 온 재즈 트럼펫 연주자 읍 반 라인(Joep Van Rhijn)은 특유의 서정적인 음색으로 듣는 이의 마음에 감동을 선사한다. 인터뷰 전에도 녹음에 한창이던 그는 성실한 음악가이면서 동시에 관객들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무대를 만들고 싶은 로맨티시스트다. 올가을 열릴 <2025 화성재즈페스티벌>에 서는 그를 만났다.

글 차예지(편집실) 사진 김성재(싸우나스튜디오)





음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저는 네덜란드 북쪽에서 태어났어요. 네덜란드에는 마을마다 윈드(관악)밴드가 있어요. 취미로 할아버지도 아이들도 같이 즐기며 악기를 배울 수 있고 합주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음악을 시작했는데, 제가 살던 마을에는 트럼펫 연주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트럼펫을 연주했어요. 어머니가 재즈 음악에 관심이 있으셔서 어린 시절 재즈를 가끔 들을 기회가 있었고, 저도 재즈를 좋아하게 되어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던 지역의 선생님은 클래식 전공이어서 처음에는 클래식밖에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러다 16살에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갔을 때 학교 재즈 밴드에서 연주하게 됐어요.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와서는 본격적으로 음악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때부터 재즈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왜 재즈였을까요?

클래식은 규칙이 많고 기술적으로 악기를 잘 다루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재밌지만 배워갈수록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좀 더 자유롭게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솔로로도 활동하시고, '라임(LIME)'이라는 팀을 이끌고 계시기도 합니다. 라임을 소개해주신다면요?

작년에 라임이라는 팀을 만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콘트라베이스, 피아노, 트럼펫 이렇게 셋이 트리오로 많이 활동했어요. 그러다 피아노나 기타와 같은 코드 악기 없이 멜로디 중심으로 하는 음악을 만들고 싶었어요. '라임'은 단어부터 신선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새로운 음악을 하겠다는 뜻을 담았어요. 'Lyrical, Improvised, Music, Ensemble(서정적인, 즉흥적인, 음악, 앙상블)'의 약자이기도 해요. 라임은 플루겔혼, 테너색소폰, 콘트라베이스, 퍼커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서 확장된 버전인 'LIME XL'은 플루트, 트럼펫, 트롬본, 드럼이 더해져 에너지틱하고 풍성한 사운드가 특징입니다.

웬만한 라인의 음악적 특징이나 소리의 매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걸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데(웃음), 리뷰를 보면 소리가 따뜻하다는 표현이 자주 보여요. 저는 복잡한 사람이 아니라서 테크닉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듣기 좋은, 블렌딩이 잘 된 음악을 하는 게 특징이에요. 재즈 역사에서 생각하면 뉴욕의 역동적인 느낌보다 캘리포니아의 부드러운 스타일이요. 최근 몇 년 동안은 플루겔혼도 많이 연주하고 있는데 플루겔혼의 음색이 다른 악기들과도 잘 어우러져서 마음에 들어요.



그런 정서가 듣는 이에게 잘 전달되는 것도 중요할 텐데, 공연할 때 어떤 부분을 신경 쓰시나요?

3월에 나온 앨범 'Between Fact & Fiction'은 어떤 이야기와 음악을 담고 있나요?

조윤성 피아니스트를 비롯해 여러 악기나 장르와 협업하기도 합니다. 연주자에게 협업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작곡할 때 주로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나요?

공연은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관객들도 다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픈 마인드로 함께 분위기를 느낀다고 생각하고 연주해요. 특히 재즈는 공간과 분위기에 따라 연주도 많이 달라져요. 작은 재즈 클럽이라면 듣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연주자를 서포트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제 음악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특별히 어떤 레퍼토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멘트도 많이 하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관객들과 소통하면서 공연합니다.

몇 년 동안 피아니스트 조윤성 씨와 같이 작업하고 있어요. 이번 앨범도 같이 했고요. 저는 원래 앨범을 만들 때 노래를 만들고 모아서 앨범을 내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타이틀을 정하고 콘셉트를 만든 다음 그에 어울리는 곡을 작곡했어요.

앨범 이름이 '사실과 허구 사이'라는 뜻이잖아요. 음악을 할 때 관객과의 소통을 통해 나누는 감정이 있는데 그건 '사실', '팩트(Fact)'로 정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법 같은 순간을 'Fiction'이라고 표현해서 둘 사이의 여백을 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노래 제목을 네덜란드어로 많이 지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기도 했고, 공연할 때 할 말이 별로 없으면 뜻을 설명 해줄 수도 있고요. 하하.

첫 번째 곡인 'Vergane Glorie'는 네덜란드어로 '사라져간 영광'이라는 뜻인데 문 닫은 놀이공원이나 무너진 성, 노인의 주름진 피부 같은 사라져가는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재즈 연주자들은 서로 끊임없이 반응을 주고받습니다. 저에게 협업은 음악으로 나누는 대화이기도 해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하나의 곡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도 달라서 재밌어요.

저는 주로 피아노로 작곡을 시작합니다. 피아노나 트럼펫으로 즉흥연주를 하면서 영감을 얻어요. 또 아이들과의 추억, 아름다운 풍경, 다른 문화를 겪어보고 만나는 것이 큰 영감이 됩니다.





향남에서 진행되는 <2025
화성재즈페스티벌>에서는 어떤
무대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제 팀 라임과 함께 공연할 예정입니다. 라임의 레퍼토리도 보여드릴 것 같고, 제 앨범에 있는 곡도 새롭게 해석해서 몇 개 할 것 같아요. 많이 아시는 재즈 곡들도 연주하고요. 아름다운 멜로디가 많은 무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즈가 어렵지 않다는 걸 전달하고 싶어요. 세련되지만 어렵지 않고, 에너지가 가득하지만 과하지 않은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관객분들도 박수 치고 춤도 추면서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SNS의 시대가 되면서 긴 호흡의 예술을 경험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번 축제를 통해 창의적인 음악들도 충분히 쉽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동탄에 연습실을 두고 계신데요.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지역일까요?

이 연습실을 사용한 지는 1년 반 정도 됐는데,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연습실 바로 근처에 있어요. 애들도 자주 놀러 오고, 제가 음악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애들도 밴드를 하고 싶어 해서 프로젝트 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8번 정도 함께 수업했는데 연주를 꽤 잘해요. 재즈 곡도 연습하고, 마인크래프트에 나오는 노래 'Steve's Lava Chicken'도 연습해요. 마을 축제에서 공연도 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스튜디오 주변에 있는 많은 것에서 영감을 얻어요.

가을은 재즈의 계절이죠. 이 계절에
추천하고 싶은 음악이 있을까요?

가을이라는 단어가 제목에 들어간 곡들이 있습니다. 'Autumn Leaves', 'Autumn in New York', 'Tis Autumn' 같은 곡들이요. 개인적으로는 조빔(A.C. Jobim)의 보사노바 곡 'Portrait in Black and White'이 가을과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곡은 쳇 베이커(Chet Baker)가 도쿄에서 녹음한 버전이 있는데,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에 녹음한 연주라 더 특별합니다.

쳇 베이커(Chet Baker)가
연주한 'Portrait in Black and White'



건축과 음악이 만들어낸 울림

남양성모성지 이상각 신부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가 설계한 남양성모성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거기에 음향 장치 없이 완벽한 울림을 만들어내는 공간이기도 하다. 재단은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여기서 특별한 클래식 공연을 선보이기로 했다. 울거울 <화성특례시 남양성모성지 클래식 음악제>가 열릴 이곳을 찾았다.

글 차예지(편집실) 사진 김성재(싸우나스튜디오)



오는 12월 5일부터 이곳에서
〈화성특례시 남양성모성지
클래식 음악제〉가 열립니다. 어떤
계기로 재단과 음악회를 함께 하게
되셨나요?

어떤 무대와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렴한 가격
덕분에 클래식 입문자도 많이 찾을
것 같은데요.

우선 성당을 특정 종교의 공간으로 한정해 바라볼 게 아니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어요. 여긴 스님들도 찾는 곳인걸요. 그냥 이 공간이 좋으
니까 여기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은 거죠. 또 종교라는 것이 궁극적
으로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치유를 건네주는 것이잖아요. 지금
세상에 종교가 문을 여는 하나의 방법인 거죠. 이곳에 어떤 사람이든
올 수 있다는 마음으로 준비했고, 음악을 듣고 위안을 얻고 돌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쉬운 건 날이 추울 때 열리다 보니 걱
정이예요.

가격이 저렴한 것은 사실 '노쇼(no-show)'를 방지하기 위한 정도로 최
소한의 금액을 책정한 거예요.
첫날은 현악기를 중심으로, 둘째 날엔 피아노 연주를, 셋째 날은 바흐
를 위한 하루라는 콘셉트로 마련했습니다. 프로그램마다 해설도 곁들
였어요. 특히 마지막 날은 바흐의 음악으로 꾸려지는데 'B단조 미사'에
대한 해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린다고 하죠. 내
용을 알면 훨씬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곡이에요. 종교 음악이라고 해
서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유럽 문화라는 게 사실 종교를 빼놓고
얘기하기 힘들거든요. 다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
록 했습니다. 클래식 음악회가 권위적이라는 인상을 받는 분도 계시는
데요. 이번 재단과 함께하는 음악회는 따뜻하고 친절하게 진행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가 설계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여기만의 장소적 특성이 이번
음악제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남양성모성지에서 공연이 자주
열리더군요. 이 공간만의 울림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말하는 소리가 성당
전체에 고루 퍼지는 것 같습니다.
클래식뿐 아니라 다른 장르의
음악도 멋지게 들릴 것 같아요.

대성당을 지을 때 가장 염두에 둔 것이 있어요. 하느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소리'다. 그래서 소리가 중요하다는 거였죠. 다양한 자재로
마감해 어떠한 기계장치, 스피커나 앰프를 사용하지 않아도 악기와 목
소리가 이 건축물과 어우러지죠. 미사 시간에 누군가의 휴대폰 벨소리
가 울려도 마치 음악처럼 들린다고 그래요. 어디서 아이가 우는 소리
가 들려도 귀가 아프지 않고요. 이 대성당 자체가 마치 하나의 예민한
악기 같아요.

성당 뒤편을 보시면 파이프오르간이 있죠? 이 건축물에 맞게 디자인해
서 3년 동안 만든 거예요. 독일의 남쪽, 프랑스와 가까운 곳에서 만든
거라서 프랑스 낭만파 음악의 영향을 받아 아주 따뜻한 소리를 가졌어
요. 내년엔 앞쪽에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인데 그러면 더 멋지겠죠.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든 성당에서 미사만 드릴 순 없잖아요. 이곳에서
인간을 위한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음악일 수 있죠.
성당은 원래 지친 영혼들이 찾는 장소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위
로를 건네주는 음악은 마치 천사의 목소리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
는 신의 음성 같은 거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음악으로 다
가가는 공간이 돼야죠.

이곳은 이미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이 연주하고 싶어 하는 공간이예
요. 여기의 소리는 직접 들어봐야 알아요. 여러 아트홀과 공연장에서
소리를 들어봐도 여기는 뭔가 클래스가 다르다고들 합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는 물론이고 국악 연주도 한 적이 있어요. 지난 9월에
도 해금을 비롯한 국악 연주자들이 찾았고요. 우리 성당에는 성가대가
없지만, 성가를 하는 외부 팀들이 여기 와서 노래하고 싶다고 연락하
기도 해요. 소리가 좋으면 사람이 찾아옵니다.
아래에 있는 소성당은 색에 중점을 두었어요. 색과 소리의 조화를 담
는 공간으로 규모는 대성당보다 작지만, 고(古)악기로 바로크 시대 음
악 같은 고음악을 연주하기 좋아요.
지금 추가로 짓고 있는 '성 요셉 문화센터'가 있는데요. 거긴 대성당보
다 커요. 그 안의 가변형 공간에서는 클래식, 록, 연극, 뮤지컬 등 모든
게 가능할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곳이 대한민국에 또 있을까요?



이번 음악제가 장기적으로 화성특례시를 대표하는 음악 축제로 자리 잡으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시에 송산포도축제, 뱃놀이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있어요. 시민을 위해 시와 재단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고품격 콘텐츠의 필요성도 있어요. 대중적이고 즐거운, 예능적인 콘텐츠도 필요하지만 진지한 것도 필요하죠. 클래식도 수백 년을 거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음악입니다. 진지한 것을 따뜻하게 나누면 그것처럼 기쁜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대중적인 연주자도 좋겠지만, 정말 음악에 대해 진중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돼야 해요. 대성당 문을 연 2019년 무렵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신부님, 이 무대에는 아무나 서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공간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라고요. 이 공간은 특별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음악회가 열리는 곳이고, 그런 공연을 보고 싶은 관객이 찾아오는 곳이 돼야 한다는 거죠.

아외무대나, 지금 건축 중인 성 요셉 문화센터에서는 훨씬 다양한 장르의 대중적인 음악을 선보일 수 있어요. 다만 대성당에서만은 저만의 원칙을 고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화성특례시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남양성모성지에서 열리는 음악회인 만큼 서남부권 지역의 예술 자원을 만들어 나가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성당이 음악회 등 여러 활동을 통해서 지역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남부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남양성모성지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건축이나 풍경 같은 하드웨어적 측면은 물론이고 높은 퀄리티의 음악회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까지도 충실한 그런 곳으로요. 지역을 넘어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 입소문나는 음악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THE 답다
talk 1

전시를 쉽게 즐기는 방법

수많은 예술 이론은 작품을 '잘 보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지만,
가끔은 설명할 수 없어도 마음을 끄는 작품이 있다.
왜 그런지 모르면서도 한참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그때 우리는 보는 것 너머의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
글 문화진흥본부장 조광연



『다른 방식으로 보기(Ways of Seeing)』
©열화당



〈la clef des songes〉, 1952 ©the mayor gallery

보는 것과 아는 것

『다른 방식으로 보기(Ways of Seeing)』의 저자 존 버거(John Berger)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피사체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사이의 관계는 결코 확정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지식 및 설명 등이 지금 내가 보는 것과 맞지 않을 수 있다.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는 이러한 현상을 회화 속에서의 언어와 시각 사이의 간극으로, “꿈의 열쇠(La clef des songes)”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사물을 보는 방식이 우리가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 즉 보는 것은 언어 이전에 오는 것이며 그 언어에 의해 완전히 묘사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해된다. 여기서 말하는 도달할 수 있는 범위는 결코 물리적인 도달 범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모두 알 것이다. 많은 사람, 심지어는 평론가조차 현대미술은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 버거의 주장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어떻게 예술 작품을 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작가(예술가) 혹은 전문가의 관점에서 작품을 보는 방향과 대중(요즘 대중은 문화예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의 관점에서 예술의 접근 방향에 대한 차이다. 즉, 마그리트가 말하는 꿈의 열쇠(핵심)는 아마도 작품 속에서 예술가(전문가)의 관점과 대중 관점의 간극이 되지 않을까 한다. ‘시각’은 예술가가 관객들에게 제시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예술가적 이미지이며, ‘언어’는 그 이미지를 접한 관객들의 생각이나 표현일 수 있다. 보통 우리가 예술을 감상할 때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일상적으로 말한다. 작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들으면서 대중이 이 작품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여기서 대중의 언어는 실질적으로 관객들이 보는 것이다. 그러면, 관객들이 작품을 온전히 즐기고 보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많아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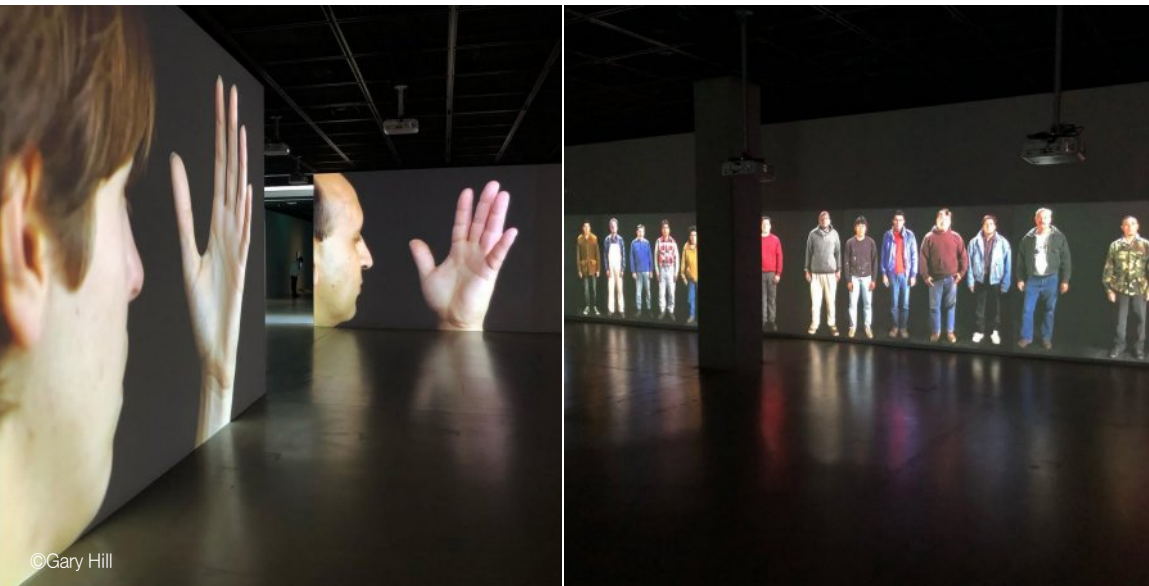
감상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하고자 필자도 대학 때 미술사 공부를 했지만, 그것으로는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시각과 필자의 언어 사이 간극을 줄이기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왔다. 나는 왜 큐레이터들이나 평론가들이 보는 내용을 보지 못했을까? 대학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종종 자책도 해본다. 아니면, 평론가들이 이야기하는 작품을 해체(deconstruction)할 능력이 없나? 그러면, 작품을 전문가처럼 분석할 수 있어야만 작품을 진정 즐길 수 있을까? 끊임없는 의문과 자괴감이 엄습한다. 작품을 아는 만큼 볼 수 있다고 하니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작품을 세세히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자.

보는 법에 대한 질문

많은 평론가나 작가들은 작품을 좀 더 넓게 이해하고, 행간의 의미를 찾고, 작품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내면의 의미에 대해 고심하고, 작품을 심도 있게 해석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와 문학 이론을 연구·적용해왔다. 이러한 이론들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에는 더욱 어렵지만, 그중에 많이 회자되는 ‘해체’를 활용하면 예술을 진정 이해하고 즐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해체를 간단히 이야기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사전적 정의의 해체는 다음과 같다. “문학이나 철학을 연구할 때 사용되는 이론으로, 한 문장이 한가지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에 따라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다.”(웹스터 사전) 이러한 주장은 해체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수원시립미술관



©Gary Hill

필자가 이해한 해체의 의미는 이렇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들으면 우리의 뇌는 그 단어의 반대 개념을 떠올려서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단어의 본래 의미는 많이 왜곡된다고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주장한다. 우리가 흰색에 대해 들으면 우리 뇌에서는 그 흰색의 반대되는 개념인 검은색을 떠올려서 흰색을 이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흰색은 '과장된 흰색'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사실일까?

앞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회화 속에서 언어와 시각 사이의 간극을 꿈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 해체에서 주장하는 이분법(dichotomy)과 꿈의 간극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기도 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익히 시각적으로 경험한 흰색과 언어적으로 표현한 흰색 간에는 이분법적 간극인 꿈의 핵심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관객들이 작품을 감상할 때 이러한 이론을 알지 못해서 혹은 흥미가 없어서 작품을 충분히 즐길 수 없는 것인가?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문학과 문화 이론을 공부한 필자도 작품을 처음 접할 때 해체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며 이분법과 그 안에 내포된 언어의 계층적 체계(hierarchy)는 더욱 염두에 두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작품을 감상할 때 시각적 이미지가 전달하는 '특권(privileged)적 이미지'와 '낙인(stigmatized)된 이미지'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고 작품을 감상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다.

결국 보는 자의 몫이다

수원시립미술관에서 몇 년 전에 진행한 <게리 힐: 찰나의 흔적> 전시는 해체의 이론은 제한적이지만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필자에게는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특권적 이미지인 작가(백인)가 낙인된 이미지인 노동자(히스패닉)를 보는 시각을 통해 미국 사회 저변에 흐르는 갈등, 계급 및 삶의 애환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작가는 이러한 특권적 및 낙인된 이미지를 작품 제작 시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체는 작품의 또 다른 내면을 보도록 필자를 강요했다.

비록 이러한 이론 없이도, 아니 이러한 이론을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들은 작품을 자세히 보며 끊임없이 내용과 이야기를 찾고, 작품과 관객 사이의 관계를 유동적이지만 흥미롭게 할 수 있다. 해체 이론이 흥미롭고 행간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필자는 그래도 우리네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작품 감상법을 계속 추천하고 고집하고 싶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읽고 보는 예술 작품은, 작품을 만들 당시의 다양한 배경과 역사를 포함한 밀접한 관계들을 이해하고 감상하면 더욱 흥미롭게 느껴진다. 물론, 해체를 통해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행간을 읽을 수 있으면 더욱 좋겠으나, 이러한 과정이 오히려 작품 감상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필자는 전문가가 뭐라고 하든 오히려 나만의 작품 감상법으로 작품을 즐길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작품을 이해하기 어려워 전시회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은 필자와 같이 용기를 내어 나만의 작품 감상법을 가지고 전시장에 와서 작품의 아우라를 즐기시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시장에 우선 와야 한다. 그리고, 나만의 방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다. 내가 보는 전시에서 재미있는 요소를 발견하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리고 그 흥미로움을 통해 나름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즐기도록 하자. 하지만 혹시 작품 감상에 깊이를 더하고자 한다면 도슨트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시라. 작품에 대한 흥미와 풍미가 더욱 살아날 것이다.

친구의 눈에만 보이는

글·그림 홍화정

“거기 뭐 볼 게 있다고 가?”

고향에서 도망치듯 상경해 아등바등 지내던 대학생 시절,
학교 친구들이 제 고향에 놀러 간다고 할 때마다 꼭 했던
말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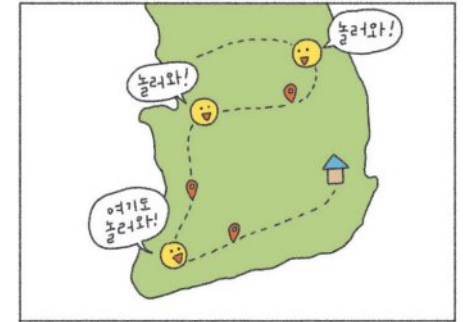
저에게 그곳은 갑갑하고, 사람들의 성미는 급하고,
촌스럽기만 하지 특별히 멋진 장소도 없는 지역이었으니까요.
“좋은 데서 왔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의아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종강 후 떠났던 내일로 여행.

기차를 타고 전국 곳곳을 여행하는 김에 기숙사 친구들이 사는
지역을 들르기로 했습니다. 고맙게도 친구들은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며 이불을 내주었고, 토박이로서 로컬 맛집과 명소도 소개해
준다며 자신만 믿으라 했거든요.
(친구가 최고로 든든해 보이던 날!)



대학교 1학년 여름 방학에는
내일로 기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기숙사 친구들이 한 방학에 놀러 오라는
약속도 지킬 겸 말이지요.



친구와 함께 동네를 돌아다니며



흥미로운 장면마다 사진을 찍는데,



의아해하는 친구의 질문에서
묘한 기시감이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그들이 제 고향이 좋았던
이유를 알게 된 것이지요.

목호에 사는 친구 집으로 가던 길.
바다를 넘 놓고 바라보던 저를 보고 친구가 바보 같다며 웃었습니다.

“너네 동네도 바다 있는데 뭘 그렇게 보냐?”
“봐, 동해 바다는 훨씬 더 시퍼렇고 웅장해. 그렇지 않아?”
“딱히 모르겠는데?”

친구는 빨리 집에 가자며 팔짱을 낀 채 골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어민들의 다양한 노동 일상이 벽화로 그려진 골목을 지나 친구 집에 도착하자마자
친구 어머니는 “얼른 들어와서 저녁 먹어! 배고프겠다!”라며 반겨주셨어요.
저녁 밥상에는 온갖 해산물이 산더미로 쌓인 물회와 생선 김치, 각종 해물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맑고 습습한 맛이 입맛에 딱 맞아 밥 한 공기만 비우면 도리에
어긋날 것이 뻔해 여러 공기를 푹뚫 비웠지요.
(친구 어머니가 참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목호 친구 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군산에는 처음 본
적산가옥과 근대식 건물이 시내 곳곳에 남아 있었고, 어딘가 생소한 양식의
오래된 건물에 중국집 간판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안동에는 거리 여기저기 하회탈
모양이 새겨져 있었고, 잘 관리된 고택의 나무색은 짙고 묵직해 ‘고풍스럽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거구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계산하며 사장님이
“잘 먹었니꺼?”라고 물어봐 주신 덕에 안동 사투리가 따로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여수에선 식당마다 반찬으로 김치가 종류별로 아낌없이 나왔고,
바다색은 부산, 동해와 또 다르게 청록빛에 가까웠습니다. 하동 박경리문학관에
들렀을 때는 친구와 함께 선풍기 앞에서 땀을 식히며 문학관에 마련된 원고지에
『토지』의 일부분을 필사했습니다. 매미가 떼로 우는 소리, 탈탈탈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종이에 닿으며 사각거리는 연필심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요.
(개인적으로 이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이었습니다.)

확대해 찍은 지역별 바다색, 바위의 모양, 사투리로 적힌 경고문, 식당 반찬,
마스코트 캐릭터 조형물, 오래된 간판, 카페의 특산품 음료 메뉴, 가로등,
버스정류장, 공원 벤치, 동네 지도 안내판... 생소하다 느껴지는 것들을 카메라로
찍을 때마다 친구들은 아무런 동요도 없이 그걸 굳이 왜 찍냐 웃었습니다.
‘애네 눈에는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귀엽고, 멋진지 안 보이는구나!’



‘내가 사는 곳은 내가 더 잘 알지.’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눈을 통해 익숙함에서 오는 앓을 뒤집어 보니 새로운
앓이 있었습니다. 저의 오만함이었던 것이지요.

기차역에서 “다음에 또 보자!” 팔을 힘껏 휘두르며 인사하는
친구를 보내고 집으로 가던 길. 함께 걸었던 동네 곳곳을 떠올려
보는데, 눈여겨보지 않았던 사랑스러운 장면들이 익숙한 기억 위에
덧그려졌습니다. 그랬더니 갑갑해서 도망치고만 싶었던 이곳이
달리 느껴졌어요.

‘여기서 나고 자란 거... 나쁘지 않았구나.
친구 말대로 좋은 데서 자랐네, 나.’
마음에 묘한 안도감과 만족감이 찾아왔고,
부랴부랴 휴대폰 메모장을 켜습니다.
이 기분이 희미해지기 전예요.

언젠가 내 동네가 무채색으로 물들어 지겹고, 재미도 없고,
갑갑하다면 친구를 초대하자. 그리고 내게는 너무 익숙한 길들을
천천히 걸으며 친구의 눈에만 보이는 장면들을 함께 감상해야지.
이 동네에서 그것만큼 흥미로운 유채색 전시는 없을 거니까.



몇 년 전 친구가 저희 지역에 놀러 와
함께 하루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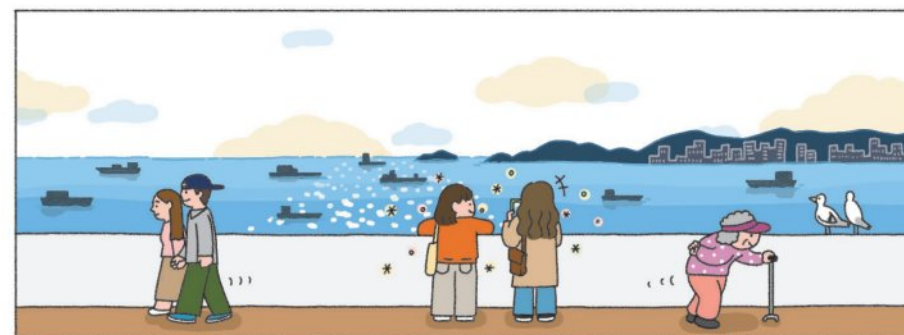
그가 가고 싶어하는 곳은 어릴 때부터 자주
가봤던 곳이어서 별 감흥 없을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친구의 휴대폰 화면에 담기는
장면들을 가만히 보다 보니



생각보다 근사한 곳이었구나,
새삼 낯설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요-



시민들이 바라보는 화성특례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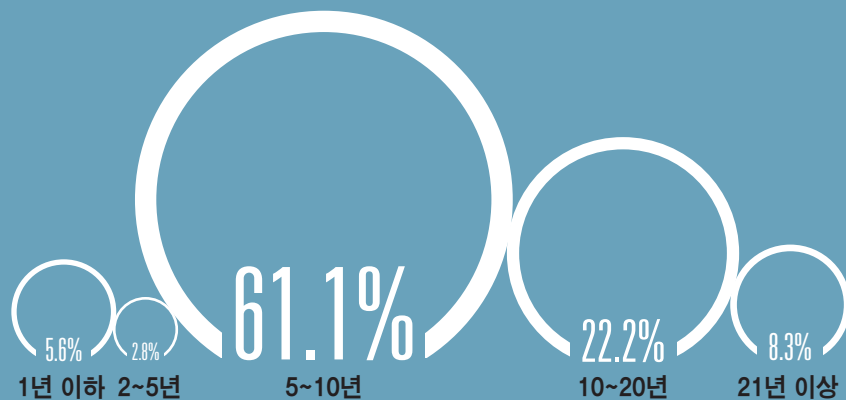
《화분》독자 참여 앙케트

각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와 개성이 새로운 매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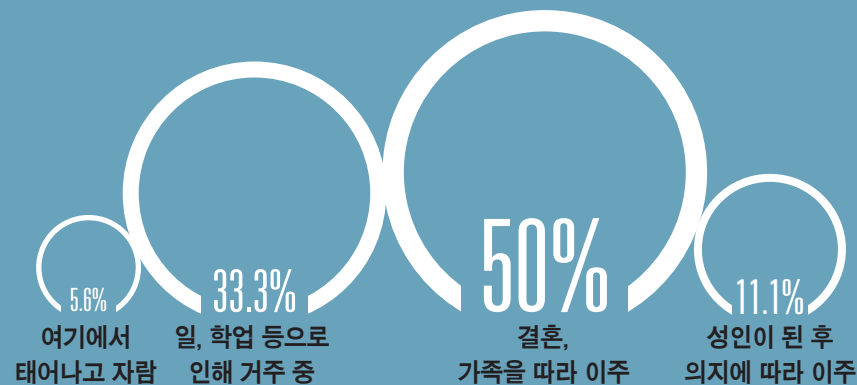
화성특례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화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다채로운 사람들이 가득한 사랑스러운 도시, 화성특례시에 대해 들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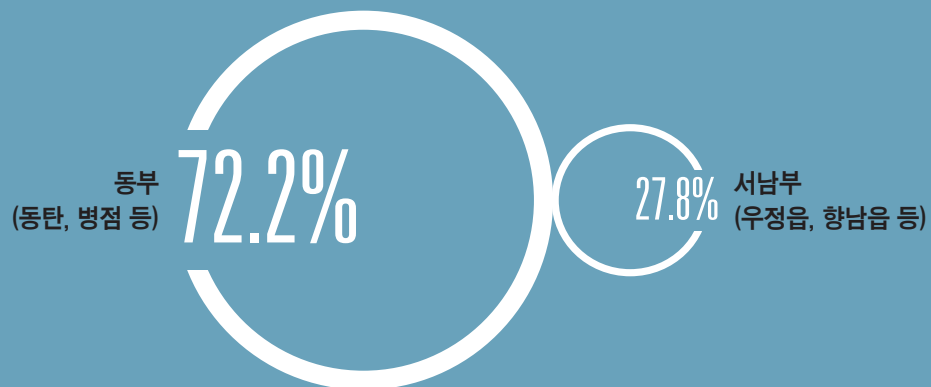
화성특례시에 거주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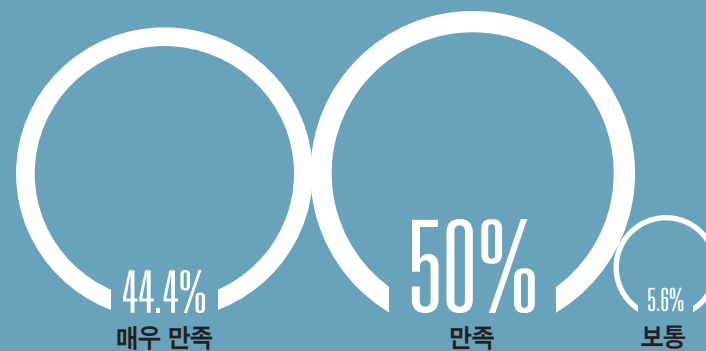
화성특례시에 살게 된 계기는?



화성특례시 안에서도 어느 동네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화성특례시민으로서,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화성스럽다'고 생각하는 지역 또는 장소가 있나요? 그 이유는?

동탄복합문화센터 - 화성시미디어센터 - 노작홍사용문학관.
대로변에 쭉욱 있는 이곳들은 시의 문화 예술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 모이는 장소라서요.

제부도, 궁평항 등. 화성이 경기도이지만 바다와 이어진 넓은 도시라는 걸 새삼 느끼게 하는 장소들이에요.

가장 '화성스럽다'고 하면 저는 단연 동탄을 꼽아요.
도시의 세련된 편리함과 공원, 호수, 카페 거리 같은 여유로운 공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서, 현대적이면서도 살기 좋은 매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화성특례시에 있는 공간 중 내가 아끼는 소중한 공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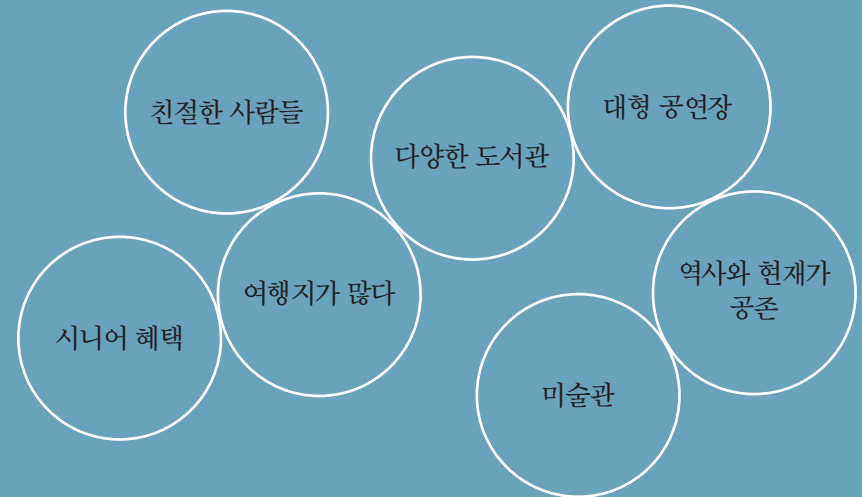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얼마전 가보았는데 건축물도 너무 아름답고,
전시 콘텐츠들도 재미있고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고, 무엇보다
독립운동하신 선조들에게 감사할 수 있던 시간이었어요.

전 요즘 여울공원에 자주 가요. 분수쇼로 귀호강 눈호강도 하고 평소엔
국가정원에서 시원한 물길 따라 산책도 하고 흔들그네에서 쉼을 즐기기도 하고,
즐겁게 러닝 하시는 분들을 보면 같이 힘이 나기도 하고,
공원 안에 다양한 매력이 숨어있어 날마다 산책해도 다른 느낌일까요!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책과 자연에서 놀게 해 줄 수 있는
진안도서관과 다람산 공원입니다. 작지만 알차고,
때때로 다채로운 행사도 이루어져 아이와 많은 추억을 만들었어요.

치동천. 언제나 운동, 산책하는 사람들로 활기가 가득해 에너지를 전해줘요.

다른 지역과는 다른 화성특례시만의 매력은?



화성특례시가 앞으로 어떤 도시가 되었으면 하나요?





THE 가다
walk

화성특례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하루

화성시역사박물관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북적이는 신도시와 첨단 산업단지의 모습이 익숙한 화성특례시는 사실 아주 오랜 역사의 흔적을 품고 있는 도시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곳에서 하루 동안 시간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단순히 유물을 보는 것을 넘어, 옛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글 차예지(편집실) 사진 김성재(싸우나스튜디오)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화성시역사박물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동로 96
031-5189-7038

이용시간

10:00~18: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 휴관

지난 2021년 개관 10주년을 맞은 화성시역사박물관은 화성 시민들이 모아준 자료를 기반으로 설립된 곳이다. 그래서인지 박물관 로비에는 유물을 기증·기탁한 시민들의 이름이 한가득 쓰여있다. 박물관은 고대부터 근현대까지의 화성 역사가 담긴 역사문화실, 농촌과 여촌의 모습을 민속자료로 보여주는 생활문화실, 옛사람들의 삶에서 기록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하게 하는 기록문화실에 더해 어린이 체험실, 기획전시실을 운영 중이다. 1층의 어린이체험실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퍼즐, 컬러링, 복식 체험 등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요소들로 가득하다. 신석기시대 토기부터 화성시 지도 애니메이션까지 화성특례시의 과거와 현재를 느낄 수 있게 구성됐다. 2층으로 올라가면 옛날 생활 문화를 알 수 있는 소장품들과 고문서, 책 등을 볼 수 있다. 경기 서남부에서 가장 큰 마을 유적인 발안리 유적지에서 확인된 온돌과 부뚜막처럼 실생활에서 사용됐던 물

건들을 통해 화성특례시의 지나온 시간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다. 경기 남부에서는 최초로 발견된 백제의 금동관, 금동신발을 볼 수 있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다. 과거 이 지역의 일반적인 가옥 구조를 재현해 둔 것도 인상적이다. 화성특례시는 신도시가 건설되며 기존의 농경지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 지역이다. 지역의 변화로 생활 방식도 변화했기에 과거 궁평리에서 행했던 낙지잡이, 유포리의 뱃치기(뱃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며 흥을 돋우는 풍습)와 소금 만들기 등 정겨운 모습을 보는 것도 즐겁다. 기획전시실에서 진행 중인 <옷자락 기억의 자락>전은 복식 관련 기록을 통해 옛 화성의 복식 문화와 생활상을 보여준다. 화성시에서 출토된 복식을 되살린 원형복원품, 1900년대에 촬영된 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당시의 복식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전시의 막바지에는 나의 평소 옷 입는 스타일을 과거





사람들의 복식과 매치해 16가지로 분석하고, 해당 복식의 일러스트가 담긴 포토카드도 받을 수 있다. 기획전시는 오는 12월 7일까지 진행되니, 옛 화성 사람들의 일상이 담긴 소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관람해 보는 것도 좋겠다.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문화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유아, 초·중·고생, 성인은 물론 이

주민과 장애인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도 있다. 어린이 동반 가족의 경우 매월 문화가 있는 날에 만들기 체험, 극 감상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10월부터는 전시를 더욱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온라인 미션 게임도 진행되니 이번 주말은 옛 화성 사람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포근한 나들이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

나라를 지킨 빛나는 이름들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암고주로 34
031-5189-1950

이용시간
10:00~18: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 휴관

이정표를 따라 길게 난 돌벽을 옆에 끼고 걸어 내려 가면 지상에서 눈에 띄지 않던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작은 돌을 쌓아 만든 연못이 반기는 독특한 외관은 '독립운동기념관'이라는 장소에 대해 조금은 따뜻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누구라도 만족시킬 만한 세련된 모습이다. 지하에 있지만, 곳곳에 큰 창과 외부 연결 공간을 뒤 위로부터 들어오는 빛이 기념관을 따뜻하게 비춘다.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은 기존의 제암리3·1운동기념관을 확장 이전해 작년 4월에 새로이 문을 연 곳이다. 기획전시실과 상설전시실, 어린이전시실 등의 실내 전시 공간은 물론 마당과 정원, 피크닉실까지 갖추고 있어 종일 둘러보기에도 지루함이 없다.

상설전시실에서는 19세기 후반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독립을 향한 화성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도록 시기에 따라 나뉜 총 5부의 전시가 펼쳐진다. 어린이전시실은 직접 만지고 놀러볼 수 있는

미디어와 각종 체험전시물을 갖추고, 화성특례시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도 있어 아이들에게 독립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쉽게 알려줄 수 있다.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돼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게임 형태의 체험은 물론 초·중·고생 각각의 눈높이에 맞춘 단체 교육 프로그램도 풍부하다. 독립운동이라는 조금은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친근하게 풀어내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오는 10월 말에는 제암리·고주리 학살사건과 관련해 예정된 기획전시와 해당 전시에 관련된 특강도 준비되어 있으니 하늘이 좋은 가을날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을 찾아 화성특례시의 대표 독립운동에 대해 알아보고 그 당시 화성 시민들이 겪었던 삶을 조금이나마 공감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11월 16일에는 순국선열의 날(매년 11월 17일)을 맞아 초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만들기 체험 '빛으로 새기는 독립운동가



최초 사형된 부민 유한 독립운동가 사진이다. 앞줄은 이 시신을 한 달에 200원씩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에게 사형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 글씨'가 진행될 예정이니 아이와 함께 방문해도 좋겠다.

현재 기획전시실에서는 부민관 폭파 의거 80주년을 기념한 특별전 <조문기의 시한폭탄은 아직 터지지 않았다>가 열리고 있다. 일제강점기 마지막 의열투쟁이라 불리는 부민관 폭파 의거의 주역 중

한 명이자 화성 출신 독립운동가 조문기(趙文紀, 1927~2008)의 독립 정신이 깃든 삶을 조명하는 전시다. 그는 광복 이후에도 천일 청산의 중요성을 알리며 『친일인명사전』 발간에 헌신했다. 이번 기획전시는 12월 14일까지 열린다.

THE 가다
travel

발안만세시장을 맛있게 즐기는 31가지 방법

발안만세시장은 100년 전, 경기 남부의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역사의 중심지다. 1919년 3.1만세운동의 의미가 뚜렷하게 남아있는 만세시장 거리에는 이국적인 다문화 거리의 바이브와 유니크한 음식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시작된 만세시장 먹자골목의 다국적 음식문화는 만세시장에서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이다. 태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30여 개국의 다국적 음식문화와 매력적인 향기가 시장 골목마다 따뜻하고 맛있게 스며있다.

글 민혜경(여행 작가) 사진 민혜경, 발안만세시장상인회



독립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만나는

발안만세시장

발안만세시장은 일제강점기 때 나라 잃은 아픔을 격렬하게 겪었던 장터로 3.1운동 당시 발안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곳이다. 1919년 3월 31일과 4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던 만세운동은 일제의 무단통치에 맞서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한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민족의 자주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

발안만세시장 장날에 향남면과 팔탄면 주민 1,000여 명은 일사불란하게 모여 거리 곳곳에서 열렬하게 만세를 외치고 시가지를 행진했다. 시위대와 일본 경찰과의 충돌로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고 이에 격분한 주민들이 돌을 던져 일본인 경찰부장이 사망에 이르자 일제의 무차별 보복이 시작되었다. 결국 제암리 학살사건으로 이어진 만세운동의 현장은 발안시장 옆으로 흐르는 개천 부지와 발안파출소 앞 삼거리로 역사 속에 남아있다. 2013년 이 역사적 사건을 기리기 위해 시장 이름을 '발안만세시장'으로 변경하고 독립운동의 정신을 오롯이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시에서 발안만세시장 일원의 총 4.4km 구간에 항일 기념 발안만세거리를 조성했다. 일제강점기 때 만세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던 이곳은 수원과 오산을 도보로 오가던 시절, 농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 등 물물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장터 중 하나였다. 발안마을은 서해 갯벌이 있어 각종 농수산물 이 신선하게 거래되었고 또한 발안천이 서해와 내륙을 연결시킨 덕분에 발안마을에 물산과 사람들이 모

이게 되면서 큰 시장이 형성되었다. 1990년대 말까지 만세시장은 경기 지역의 사람들이 즐겨 찾던 오일장이었다. 2000년대가 되면서 시장 주변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온라인 쇼핑몰이 늘어나면서 시장을 찾는 사람들도 줄어들었다.

100년의 역사를 품은 발안만세시장은 지금 화성특례시 서남부의 생활 중심 터전으로 외국인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3만여 명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외국인 특구지역이다. 다문화가정과 이주노동자들이 많다 보니 그들의 수요를 만족시켜 줄 글로벌 마켓도 증가하는 중이다. 주말엔 장을 보러오는 대부분의 사람이 다문화가정이라고 할 만큼 만세시장 오일장은 글로벌 마켓으로 사랑받고 있다.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인도, 스리랑카, 베트남, 고려인 등 국적도 30여 곳이 넘는 만큼 다양하다. 다국적 외국인들과 한국인이 함께 모이다 보니 세계 각국의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외국 식당도 다양하다. 만세시장의 역사와 문화, 예술 그리고 오일장과 글로벌한 음식들은 왠지 낯설고 어울릴 것 같지 않으면서도 매력적인 분위기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만세시장 오일장의 ‘다문화 프렌들리(friendly)’ 상권

1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만세시장은 다른 재래 시장에 비해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경기도 남부에서 가장 유명한 오일장이 열리는 곳이다. 장날이 주말인 날이면 전통 장을 보러온 관광객들과 외국인 주민들로 시장이 북적거린다.

화성특례시의 전통시장은 발안만세시장 외에도 남양읍의 남양시장, 송산면의 사강시장이 대표적이다. 남양시장은 매월 1일과 6일, 사강시장은 매월 4일과 9일이 장날이다. 화성 원도심에 위치한 발안만세시장은 매달 5일과 10일이 되는 날에 전통 오일장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은 크게 ‘만세동락’, ‘동가발상’ 그리고 ‘세세만년’이라는 세 개의 거리로 구분되는데, 애국, 애족, 애향의 신념을 지켜온 만세시장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오일장에는 전통 재래시장 특유의 활기와 넉넉한 인심이 넘쳐난다. 시장으로 들어서면 신선한 채소와 제철 과일, 싱싱한 생선, 입맛이 절로 도는 수제 반찬 등 지갑이 자꾸 열리는 시장 먹거리들이 수두룩하다. 시장 한쪽에는 태극기 떡을 재현해서 판매하는 떡집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찹쌀과 천연색소로 만드는 태극기 떡은 태극 문양과 사과를 그대로 구현해서 만들기 때문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등 나라의 기념일에 맞춰 떡집을 찾는 손님들이 많다.

발안만세시장은 다른 전통시장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지만, 10여 년 전부터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화성시 공단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이들이 이곳에 터전을 잡았기 때문이다. 과거 고려시대 외국 사신과 상인들이 빈번하게 왕래했던 나루, ‘벽란도’에서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사람들이 자국 물건을 거래하고 다양한 문화를 교류했던 것처럼 발안만세시장 역시 다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발안 지역을 다문화 사회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발안만세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외국인 비율이 내국인보다 많아서 다양한 국가의 음식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주말에 만세시장을 찾으면 어느 외국의 거리처럼 느껴질 만큼 활기가 가득한 다문화 거리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다. 외국인 특화 거리가 된 발안시장은 2개 구역으로 나뉜다. 동남아시아와 유라시아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과 차이나타운처럼 형성된 중국인들의 거리다. 한문 간판이 눈에 띄는 골목에는 화려하고 푸짐한 음식 사진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만세시장 음식문화 특화거리의

31가지 별미

최근 화성특례시는 발안만세시장 거리를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했다. 다양한 문화권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네팔, 방글라데시,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등 40여 개의 로컬 식당이 밀집해 있는 거리를 걷다 보면 행복한 고민이 시작된다. 커리와 네팔식 만두를 맛보는 네팔 레스토랑, 스리랑카 가정식을 맛볼 수 있는 뷔페 레스토랑, 베트남 쌀국수집, 터키 케밥 식당, 정통 커리를 맛보는 인도 레스토랑, 중앙아시아를 대표하는 삼사 식당 등 다양한 문화권의 음식점을 만세시장 거리 구석구석에서 만날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셰프가 운영하는 '야신'은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는데, 화덕고기빵인 삼사(Somsa)를 굽는 작업 공간과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작고 아담한 식당에는 테이블이 놓여있고, 외국인들이 삼사를 먹고 있다. 삼사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위구르 신장 문화권에서 즐겨 먹는 주식이다. 삼사는 인도의 사모사와 달리 튀기지 않고 화덕에 구워내는 게 특징이다. 탄두리(화덕)에서 구워낸 삼사는 왕만두와 파이 중간쯤 되는 맛의 쫄깃하고 바삭한 식감을 갖고 있다. 화덕에 구운 빵이라 담백하면서 고기와 양파가 듬뿍 들어있어 '겉바속촉'의 기본에 충실한 고기 빵이다.

'엄마손만두 플로리다'에서도 독특한 국수를 맛볼 수 있다. 한국인 남편과 고려인 3세 아내가 운영하는 만두와 국수집인 플로리다는 아내의 이름을 따서 지었는데, 모든 메뉴는 고려인 아내가 요리한다. 매일 직접 빚는 중앙아시아식 만두 '만트', 양배추와 소고기 들어가는 고려인 만두 '비고지', 우리나라 잔치국수와 비슷한 고려인 국수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고려인 국수는 과거 스탈린의 강제이주정책으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건너간 고려인들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등에 정착하면서 만들어 먹은 소울푸드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살았던 안주인의 고려인 국수는 낫설지 않다. 국수 위에 고명으로 올리는 피망 볶음, 소고기볶음, 오이절임, 양배추김치, 달걀지단과 토마토, 오이채와 고수와 허브가루 등이 올라간 생소한 비주얼의 국수지만, 맑은 토마토 육수가 시원하고 상큼해서 이국적인 국수 맛 사이로 웬지 모르게 잔치국수의 친근한 맛이 느껴진다.

발안만세시장 안에는 다른 시장에서 찾을 수 없는 특별한 식자재를 파는 아시안 마켓들도 많다. 고수, 사탕수수, 아저수, 두리안 등 유리창 밖에서 동남아시아에서 공수한 과일과 채소를 구경하다 보면 가게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못 배길 만큼 신기한 재료들이 눈에 들어온다. 마치 동남아 여행을 하는 듯한 착각이 들 만큼 현지에서 가져온 다양하고 신기한 재료들이 진열되어 있어 흥미로운 아이 쇼핑을 즐길 수 있다. 색다른 호기심에 선택한 양념 소스가 뜻밖의 흥미로 입맛에 맞을 수도 있으니 주인장과 담소를 나누며 특별한 쇼핑 시간을 가져도 좋다.

여행정보

발안만세시장 상인회
경기 화성시 향남읍 평2길 7 3층
031-452-0120

야신

경기 화성시 향남읍 평3길 10

엄마손만두 플로리다

경기 화성시 향남읍 평2길 7-1
070-4833-8982

예술과 더 가까이 만나다

화성 아트버스 & 화성특례시 서울로 365

올 하반기,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이 두 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하나는 지역을 누비고, 다른 하나는 예술의 중심으로 나아간다. 방식은 다르지만 향하는 곳은 같다. 작품이 특정한 장소에만 머무르며 누군가 오기만을 기다리기보다 일상과 가까이 더 많은 인파 속으로 스며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예술과 여행, 그리고 도시가 만나는 '아트버스'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이 예술과 관광을 결합한 특별한 문화 프로그램 '아트버스'를 선보인다. 아트버스는 현대미술을 향유하며 도시 곳곳을 여행하는 새로운 방식의 1일 투어이자 화성특례시 동부와 서부를 잇는 여정이다.

아트버스 프로그램은 국내외에서 여러 번 진행된 적 있는 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 종로구에 미술관 투어를 위한 일일권 형태의 아트버스가 도입돼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 가나아트센터, 종로구립박노수미술관 등을 경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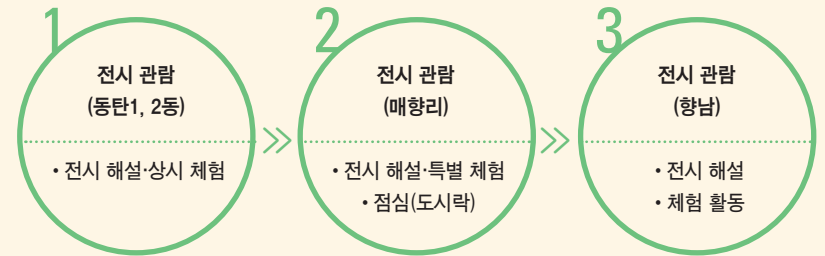
화성특례시 역시 지역만의 예술적 감성을 담은 아트버스를 준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재단 전시기획팀이 운영하는 4개의 기획전시를 경유하는 코스로 구성되며, 전문 도슨트의 해설이 동행한다. 또한 각 전시별로 특별한 전시 연계 체험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올가을, 화성특례시를 한 바퀴 돌며 예술의 정취를 흠뻑 느껴보면 어떨까.

감상에서 체험까지, 하루 동안 예술을 온전히 즐긴다

아트버스 프로그램은 셔틀버스 탑승으로 시작된다. 참가자들은 전용 버스를 타고 화성특례시 동부와 서부에 위치한 전시 공간을 이동하며, 도슨트의 작품 해설을 들을 수 있다. 도슨트의 안내를 통해 작품에 담긴 의미와 현대미술의 흐름을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으며, 단순한 관람이 아닌 몰입형 경험으로 작품을 즐길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각 전시와 연계된 체험 활동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하며 예술의 현장을 몸소 느낄 수 있다. 조각, 설치, 회화, 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를 한 번의 여정에서 만날 수 있는 이번 아트버스는 짧지만 강렬한 현대미술 여행이 될 예정이다. 이번 아트버스는 2025년 11월 주말 동안 총 4회 운영되며, 회차당 40명의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한다. 참여 신청에 대한 정보는 10월 중순,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재단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 구성 및 일정



예술과 관광의 융합, 화성특례시만의 독자적 콘텐츠

아트버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전시를 연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예술과 관광을 결합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타 지역과의 경쟁 속에서 화성특례시만의 독자적 문화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도시 인지도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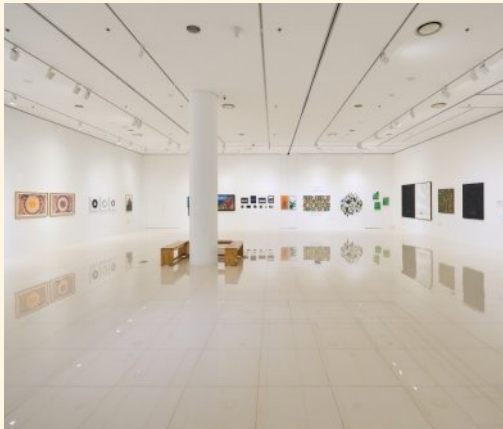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이번 아트버스를 2025년 시범 운영 후, 참가자들의 피드백과 평가를 반영하여 2026년에는 정규 프로그램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트버스는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기다리는 화성특례시의 대표 예술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작품과 도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하루, 관광객들에게는 화성특례시만의 독창적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 아트버스는 예술과 여행, 그리고 도시가 만나 만들어낼 새로운 경험의 장이 될 것이다.

조각가 엄태정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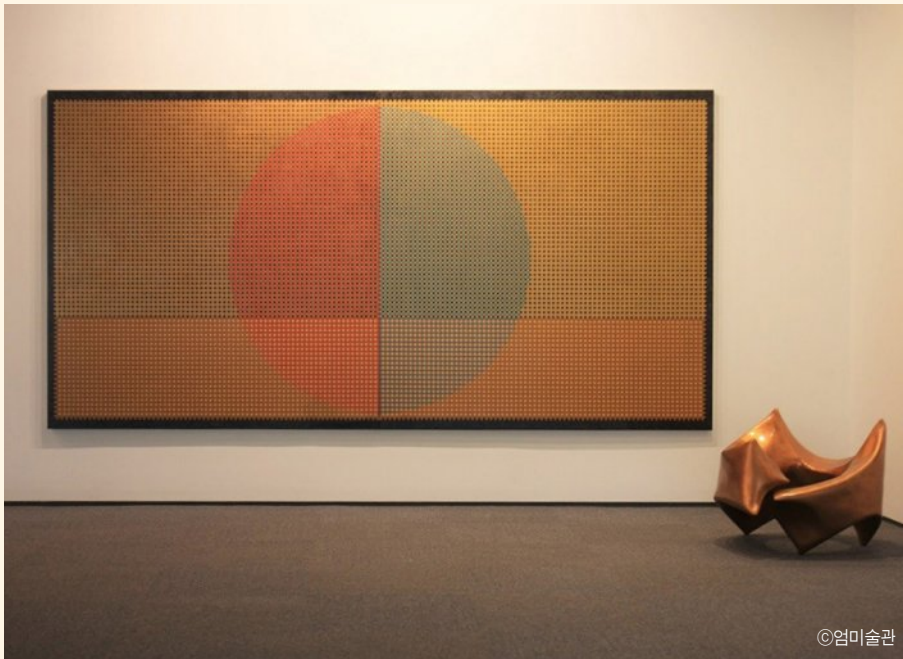
〈낮선자의 포에지〉

10.14.~11.30.



동탄아트스페이스

예술가와 시민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전문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춘 전시를 선보이는 동탄아트센터는 동탄복합문화센터 안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엄미술관

〈낮선자의 포에지〉는 존재와 세계의 관계, 그리고 내면의 사유를 작품의 소재로 삼았다. ‘대한민국 1세대 조각가’로 불리는 엄태정의 추상 조각 작품을 아트버스를 통해 만나보자.

기획전

〈감정, 또 하나의 언어〉

9.26.~11.29.



화성열린문화예술공간

2023년 개관한 화성열린문화예술공간은 지역 예술가 지원을 위한 전시 공간과 교육실 등으로 구성되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전시와 체험을 제공하는 곳이다.



©최혜란

〈감정, 또 하나의 언어〉는 감정의 다양성과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환대하며, 이를 공감과 소통의 장으로 확장해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혜민, 최혜란, 전민혁 작가 3인 단체전으로, 서로 다른 작가의 작품세계를 감상하고 예술을 통해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밖에서 만난 예술 기획전시
〈기억과 희망: 이 땅의 평화의 씨앗〉

10.15.~11.30.



매항리평화생태기념관

쿠니사격장으로 고통받았던 매항리의 역사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공간, 매항리 평화생태기념관은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가 설계해 건축적인 아름다움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권석만

기획전시 〈기억과 희망: 이 땅의 평화의 씨앗〉은 과거의 상흔을 기억하면서도 그 위에 희망을 심고, 예술을 통해 다시 평화를 말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관람객들은 건축물의 웅장함을 담고 있는 실내와 야외를 넘나드는 공간에서 정현·권석만(설치), 한승구·최종운·이재형(미디어) 등 작가 5인의 작품을 마주하게 된다. 작품 속에 스며든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기억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고통을 바라보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선물할 예정이다.

밖에서 만난 예술 기획전시
〈포스트 모던 요괴 연대기〉

10.28.~12.7.



향남복합문화센터

화성시 남부권 최대 문화 복합공간인 향남 복합문화센터는 문화, 교육, 돌봄 등 시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다.



©이정은

예술경영지원센터 국비공모사업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획전시 〈포스트 모던 요괴 연대기〉는 한국의 신화, 전설, 고전문헌 속 요괴 서사와 동시대 작가, 디자이너, 로봇공학자의 시선이 만나 낯설고도 기이한 요괴의 세계를 펼쳐 보인다. 이우재, 정민기, 나옴, 정우원, 이강훈 등 총 11명 작가의 100여 점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으며, 나만의 요괴 만들기 체험, 요괴 관련 서적 작가 워크숍 등을 운영하여 교육과 재미를 결합한 풍성한 전시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지역예술의 새로운 거점, '화성특례시 서울로 365'

2026년 지역예술 유통 기반 강화 사업인 화성특례시 서울로 365(가칭)는 국내 미술시장의 상징인 인사동 중심부의 인사아트센터에서 지역 작가와 전시 기획자가 안정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동시에 지역 작가들이 국내 미술 중심부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은 인사아트센터 3층 제1 특별관(약 17평, 높이 3.3m)을 대관 장소로 활용하며, 화성특례시 지역 작가들이 대관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 작가 전시와 홍보, 작품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시장은 공모를 통해 약 2주 단위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과 미술 관계자가 집중되는 인사동에서 전시를 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작가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작품 거래 또한 활발히 진행될 수 있게 돕는다.

2026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2025년 12월에 파일럿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12월 10일부터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의 활동을 알리는 홍보 전시와 화성특례시의 핵심 콘텐츠를 미디어아트로 구현한 전시를 만나볼 수 있다.

2026년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된다. 상반기는 1월부터 6월까지 작가 공모와 전시, 재단 홍보가 진행되고,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화성특례시에서 뻗어나가는 예술의 물줄기

이번 사업 참여 작가들은 인사동 전시 이력을 통해 갤러리 초청, 해외 전시 등 중앙 무대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고, 전시장은 전시뿐 아니라 문화·관광상품 홍보 및 판매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어 지역 문화와 관광 연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파리 국제예술공동체(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레지던시와 연계하여 화성특례시 지역 작가를 현장 파견할 예정이다. 파리 국제예술공동체는 프랑스 파리 마레지구에 위치한 국제 레지던시로, 전 세계 1,000여 명의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교류의 장이다. 화성특례시 참여 작가는 3개월간 레지던시에 무료 입주할 수 있으며, 최대 2명이 함께 체류 가능하고, 원할 경우 현지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추진 일정(예정)

2025년 12월	• 인사아트센터 파일럿 전시 • 2026 사업 세부 계획 수립 및 사업설명회 개최
2026년 1월	• 참여 예술인 모집 공고·심의·선정(상반기)
2026년 2~6월	• 상반기 사업 진행(총 16주) • 특별전시 및 재단 사업 홍보관 운영
2026년 5월	• 참여 예술인 모집 공고·심의·선정(하반기)
2026년 7~12월	• 하반기 사업 진행(총 16주) • 특별전시 및 재단 사업 홍보관 운영
2026년 12월	• 사업성과평가 및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공연, 일상 그 이상의 감상

화성시문화관광재단 10~12월 시즌 공연 프리뷰

단풍나무가 황금빛을 피우고, 다람쥐가 겨울잠을 준비하는 10~12월에도 화성·반석·누림 아트홀에서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공연이 이어진다. 바쁜 일상에 잠시 쉼표를 찍고, 계절의 변화와 함께 더욱 깊어지는 무대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

글 공연기획팀 김연희

집착에 눈먼 자들이 벌이는 그로테스크한 난장 창극 <살로메>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 <살로메>가 탐미적 창극으로 다시 태어나 우리 소리로 광기와 집착을 노래한다. 요한에게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진 살로메는 그에게 무시당하자 헤로데 왕에게 일곱 베일의 춤을 선물하고 그의 목을 요구하는데... 그날 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

가을 저녁을 물들일 뮤지컬 넘버의 또 다른 감동 <반석산 피크닉: The Musical Concerto>



<레 미제라블>, <오페라의 유령>, <알라딘>, <블랙메리포핀스>, <프랑켄슈타인> 등 전 세계를 사로잡은 뮤지컬 명곡들과 함께 국내 창작뮤지컬의 넘버까지! 강연정, 김태환, 나하나, 송상은, 이정화, 이휴, 황건하 그리고 피아니스트 송영민과 유어오케스트라가 함께 만드는, 가을 저녁을 수놓을 단 한 번의 뮤지컬 콘서트.

영화와 소설 속 클래식 명곡의 감동을 렉처 콘서트로 만나다
2025 렉처 콘서트 PART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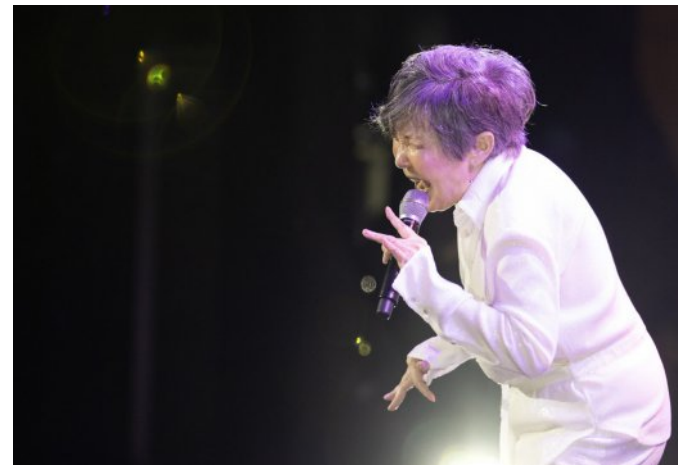
세계적 거장들의 영화와 글 속 울림이 클래식 명곡과 만나 새로운 감동으로 되살아난다. 영화 속 감동을 더해 주는 아름다운 오페라 곡으로 구성된 <영화에 녹아 든 오페라>와 전 세계가 사랑하는 현대문학의 거장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 세계 속 음악을 담아낸 <소설 속 클래식>까지! 한 달에 한 번, 화성시 문화의 날에 만나는 렉처 콘서트로 삶의 활력을 느껴보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연극
연극 <그래도 가족>



인생의 시작점이자 안식처인 가족. 그 평범한 일상을 통해 삶의 상처와 용서, 화해 그리고 희망을 담아낸 사람 냄새 가득한 이야기. 청룡영화상과 대중상영화제 미술상을 수상한 무대미술계의 전설 조화성 감독이 선보이는 하이퍼리얼리즘 무대 연출까지! 우리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일까.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레전드 팝 스타 <윤복희 콘서트>



대한민국 최초의 디바 윤복희. 그의 70년을 담은 음악, 무대 그리고 삶이 국내 최정상 색소폰니스트인 이정식 밴드와 함께 펼쳐진다. 공감과 위로가 그리운 시대, 마음을 울리는 90분의 특별한 무대가 당신을 기다린다.

비발디와 피아졸라, 두 거장이 선사하는 황홀한 무대!
김영욱X콜레기움 무지쿰 서울 <8 Seasons>



바로크의 우아함에서 탱고의 열정까지, 비발디와 피아졸라 두 시대 거장의 사계가 한 무대에서 만난다. 노부스 콰르텟의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과 국내 최고의 원전 음악 원주단체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이 함께 선사하는 한 편의 시 같은 계절 여행.

눈부신 겨울, 무대 위의 마법
발레 <호두까기 인형>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 화려한 무대와 의상으로 선보이는 와이즈발레단만의 독창적인 호두까기 인형. 장난
기 가득한 인형들이 펼치는 예기치 못한 사건들, 과연 크리스마스의 마법은 어떤 결말을 맺을까?

※ 공연 문의 1588-5234

공연 예매하러 가기 ▶▶



화성시문화관광재단 10~12월 공연 정보



창극 <살로메>
일시 10.15.(수)~16.(목) 19:30
장소 반석아트홀
가격 R석 3만 원 / S석 2만 원
대상 14세(중학생) 이상



<반석산 피크닉:
The Musical Concerto>
일시 10.18.(토) 17:00
장소 동탄북문문화센터
아외공연장
가격 R석 5만 원 / S석 4만 원
A석 3만 원
잔디석 3만 원
대상 전세 관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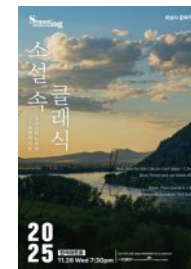
2025 렉처 콘서트 PART II
<영화에 녹아 든 오페라>
일시 10.31.(금) 19:30
장소 반석아트홀
가격 전석 1만 원
대상 8세(초등학생) 이상



연극 <그래도 가족>
일시 11.1.(토)~2.(일) 15:00
장소 화성아트홀
가격 전석 3만 원
대상 12세(2013년도
이전 출생자) 이상



<윤희 콘서트>
일시 11.8.(토) 17:00
장소 화성아트홀
가격 R석 5만 원 / S석 3만 원
대상 8세(초등학생) 이상



2025 렉처 콘서트 PART II
<소설 속 클래식>
일시 11.26.(수) 19:30
장소 반석아트홀
가격 전석 1만 원
대상 8세(초등학생) 이상



김영욱X클레기움 무지킴 서울
<8 Seasons>
일시 11.29.(토) 17:00
장소 반석아트홀
가격 전석 3만원
대상 8세(초등학생) 이상



발레 <호두까기 인형>
일시 12.20.(토) 14:00/18:00
장소 화성아트홀
가격 R석 6만 원 / S석 5만 원
A석 3만 원
대상 48개월 이상

나, 너,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지다

화성특례시 생활문화동호회 '강강아리랑'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악기 연주에 홀리듯 따라가 본 적이 있는가. 세상에
많고 많은 악기 중에 유독 끌리는 악기가 있게 마련이다. 인연일까, 운명일까.
해금이라는 악기에 매료된 이들에게 이제 그런 이유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강강아리랑' 회원들에게 해금이란 이미 삶의 일부니까.

글 이현주(편집실) 사진 김성재(싸우나스튜디오)



지극히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심금(心琴)을 울린다’라는 말이 있다. 모름지기 단어란 다수가 공감하는 상태로부터 탄생하게 마련이다. 세상 많은 것들이 심금을 울리겠지만, 단어 속에 ‘거문고(琴)’를 품고 있는 악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음이 틀림없다. ‘강강아리랑’ 역시 하고많은 악기 중에서도 마음을 두드리는 해금(奚琴)에 매혹된 사람들이 모인 동호회다.

해금은 중국에 살던 해(奚)족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한반도에는 고려 예종 때 전래되어 국악기로 자리 잡았다. 원통형 울림통에 오동나무 판을 붙여 한쪽 끝을 막고 대나무 기둥을 꽂아 자루로 삼은 이 악기는 현이 2개지만 놀랍게도 다양한 소리를 낸다. 일단 그 음색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이라면, ‘과연 심금을 울린다는 건 이런 것이로구나...’를 실감할 듯.

“하모니카를 배웠고, 색소폰도 연주해요. 그런데 색소폰 수업을 들으며 화성문화원에 간 어느 날 어디선가 해금 연주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답답고 마음이 끌려 해금이란 악기에 관심을 갖게 됐고, 오늘에 이르게 됐지요.”

강강아리랑의 ‘왕언니’ 강인숙 회원은 그렇게 우연히 들려온 해금 소리에 매료돼 3년째 해금과 함께하고 있다. 사실 강강아리랑 회원 모두가 그와 다르지 않다. 화성문화원에서 해금을 배우며 이 악기와 사랑에 빠졌던 이들이 자연스럽게 의기투합해 2023년 동호회를 만들게 되었고 지금까지 활동해 온 것이다.

“처음에는 악기를 연주한다기보다 문짝 긁는 소리를 내서 주변으로부터 소음공해를 일으킨다는 핀잔도 많이 들었어요. 이게 맞나 의심하며 배웠지요. 어설프었지만 그때의 소리는 지금까지도 설렘과 온기를 느끼게 해줘요. 그리고 더 잘 연주하고 싶다는 원동력이 되고 있죠.”

강강아리랑을 이끌고 있는 김여옥 대표의 말처럼, 해금은 아름다운 소리를 지녔지만 그 소리를 내기까지

가 쉽지 않다. 그래서 회원들은 더욱 열심히, 땀땀 뭉쳐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현재 강강아리랑 회원은 강인숙, 김여옥, 김향숙, 박지훈, 신은희, 심경미, 이대영 이상 일곱 명. 그리고 송윤주 강사가 회원들의 연주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교사, 직장인, 사업가, 주부 등 저마다 하는 일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양하지만, 해금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연주자’다.

민요부터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곡까지, 강강아리랑의 해금 연주 레퍼토리는 다양하다. “‘학교 가는 길’ 저부터 연주할게요! 따라 해보세요”라는 송윤주 강사의 지도로 연습이 시작되자, 조금 전까지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금세 진지해진다. 해금 ‘연주자’들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애절하고 카랑카랑한 소리가 화성시 생활문화센터 교육실을 가득 채운다. 동호회 지원 사업 덕분에 강강아리랑은 연습실 걱정 없이 쾌적한 환경을 갖춘 이곳에서 마음껏 음악에 집중하고 있다.





박수가 주는 힘

“육아휴직 중에 해금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해금 소리는 사람 목소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지요. 직장 생활을 하며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는 게 힘들지만, 일단 오면 즐거워서 계속 오게 돼요. 일상에 큰 활력이 된답니다.” 신은희 회원은 아이들이 큰 후에도 해금을 계속 연주하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해금이 친구처럼 느껴진다는 심경미 회원은 그날그날 마음의 상태에 따라 연주도 달라진다고 이야기한다. “마치 명상하듯 마음을 잘 다스려야 연주도 잘 되는 것 같아요. 해금 선율과 마음의 박자가 잘 맞아야 해요”라며, 연습 때마다 간식을 챙겨오는 김향숙 회원에게도 해금은 돌도 없는 벗이다. 장구, 팽과리 등 많은 국악기를 배우고 접했지만 가장 행복을 느끼게 해준 악기는 바로 해금이라고.

어른이 될수록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줄어드는 걸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깡깡아리랑 회원들만큼은 예외다. 이들에게는 연습만큼 연습 후 답소를 나누는 시간도 소중하다. 왕언니부터 막내까지, 음악을 넘어 삶의 고민과 기쁨을 공유하며 든든한 동료, 가족 같은 정을 느낄 수 있어서다. 깡깡아리랑 회원들은 이렇듯 일단 해금이라는 최고의 친구가 있고, 또 서로를 아끼고 든든히 의지할 수 있는 동료들까지 있어 누구보다 부자들인 듯.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을 나누는 즐거움을 잘 아는 이들이 아닐까. 깡깡아리랑 회원들은 자신들이 지닌 재능을 지역 주민들과 나누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화성시아르뎀복지관에서 가졌던 봉사 연주는 회원들 모두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저희 연주를 보신 분들이 정말 큰 박수와 열렬한 호응을 보내주셨어요. 그 덕에 앞으로 공연을 통해 많은 봉사를 하고 싶다는 의지를 갖게 해주셨지요. 앞으로 노인요양병원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스토리텔링

이 들어간 해금 연주 자원봉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 밖에도 저희 연주를 듣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김여옥 대표의 이야기처럼 악기 연주는 연주자 본인에게도 위안을 주지만 관객으로부터 받는 감동의 깊이는 경험해 보지 않고는 가늠하기 어렵다. 깡깡아리랑 회원들은 모두 관객의 호응 덕에 벅찬 설렘을 경험했다고 입을 모은다.

“저희 연주를 들으시고 감동하시는 모습을 보며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해금 덕분에 감정의 선율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단순히 악기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20년 그 이상 함께 나아가며 해금을 통해 감동을 전하고 싶어요”라며 깡깡아리랑의 ‘행동대장’을 맡고 있다는 박지훈 회원은 맑은 역할답게 길고 큰 포부를 밝힌다.



해금이 열어준 꿈

“정말 열정이 넘치는 분들이예요. 한 분 한 분 보석처럼 빛나지만 모두 모이면 더 큰 힘을 발휘하죠. 연습할 때는 수줍어하시지만 막상 무대가 주어지면 눈빛이 달라지며 진지한 프로 연주자처럼 돌변합니다.” 그 열정에 반해 더 열심히 가르치게 된다는 송윤주 강사의 말에 회원들이 “맞다, 우리는 무대 체질이다!”라고 맞장구를 치며 소녀들처럼 웃음을 터트린다. 대부분의 동호회가 그렇지만 그저 좋아서 시작했던 일은 어느 순간부터 목표를 갖게 되고, 그 목표를 향해 단단히 결속하게 된다.

“해금이라는 전통 악기의 아름다운 선율을 알리고, 세대와 세대를 잇는 문화의 연결 고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마추어 해금 동호회지만 회원들 모두 긍정적이고 열정이 많으신 분들이라 언젠가는 프로 해금 연주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김여옥 대표가 말하는 목표는 곧 이번 호 《화분》의 주제와도 연결되는 듯싶다. 깡깡아리랑 같은 모임들이 곧 화성특례시의 문화를 아름답고 단단하게 가꿔가는 것이니.

“로컬리티란 곧 'With', 함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을 함께, 더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금을 통해 함께하는 힘으로 화성시의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기성세대, 새로운 세대와 문화의 힘을 나누고 꽃피우고자 합니다. 그것이 저희의 행복이며 꿈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끌림에서 시작된 해금과의 인연은 각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럿이, 함께 그 마음을 나누게 했으며, 행동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널리 전파하게 만들었다. 작은 악기가 가진 힘은 이렇게 크고 세다. 사람들이 악기 하나쯤 연주할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품는 것도 그 힘의 의미를 알고 있어서일 듯.

깡깡아리랑 회원들이 누리는 즐거움을 공유하고 싶다면 일단 해금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 동호회 시작 초기에는 초보자도 환영했지만, 현재는 해금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 이들에게 기회가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해금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꾸준히 ‘함께 하겠다’는 하는 마음가짐과 의지다.

해금 연주 동호회 ‘깡깡아리랑’

활동기간 2023년 12월~

회원구성 30~70대 여성

활동문의 이메일 wisha81@naver.com

한눈에 보는
화성시문화관광재단

10~12월
공연·전시·행사

문화소식



센트럴파크에서 만나는 특별한 하루
2025 생활문화 아트데이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0월 25일(토), 화성시 생활문화센터에서 '2025 생활문화 아트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5 화성시 문화의 날' 주관을 맞아 시민들에게 생활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생활문화 활동가의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2025 생활문화 아트데이는 생활문화동호회 총 18팀이 참여하는 공연·전시·체험 중심의 실내 프로그램 '아트터널'과 화성시 생활문화센터 내 수공예 마켓이 펼쳐지는 '아트마켓'으로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 소개

- 아트터널** • 생활문화동호회 공연·전시·체험 (전시 8개, 공연 10개 동호회 참여)
• 입주창작자 체험 프로그램 (머그컵 제작, 수공예, 화분 심기 등)
• 생활문화 교육 프로그램 (쿠키클래스, 목공 체험)
• 찾아가는 공연장 프로그램
- 아트마켓** • 생활시장 화인 정기마켓 운영 수공예 작가 48팀 참여, 체험 및 판매
• '걸다가 화인' 시민 전시, 홍보부스, 시민참여형 이벤트 등 다채로운 체험

일시 10.25.(토) 11:00~18:00

장소 화성시생활문화센터 내 일원

문의 생활문화팀 (031-8059-1783)

화성특례시 • 남양성모성지 • 클래식음악제

Seasoning
2025 연세 시리즈

CLASSICAL MUSIC FESTIVAL

2025.12.5-7
남양성모성지

현을 위한 세레나데
페스티벌 앙상블
12.5. FRI
19:00 대성당

김영옥 바이올린 / 악장, 협연
이지혜 바이올린 / 악장, 협연
윤은솔 바이올린 / 악장
성재창 트럼펫 / 협연

다뉴브의 추억
신박듀오 [신미정 & 박상욱]
14:00 소성당

이방인의 서사시
피아노 임동혁
17:00 대성당

바흐 무반주 첼로
12.7. SUN
15:00 소성당

명화의 건축물, 바흐 B단조 미사
페스티벌 합창단 & 오케스트라
18:00 대성당

첼로 문태국
합창지휘 이성훈
지휘 김선아
소프라노 강혜정

공간의 울림이 뿜어내는 클래식의 대향연

화성특례시 남양성모성지 클래식 음악제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가 설계한 화성특례시 관광명소이자 대표적 순교 성지인 남양성모성지에서 12월 5일(금)~7일(일) <화성특례시 남양성모성지 클래식 음악제>가 첫 시작을 연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동혁, 첼리스트 문태국, 그리고 소프라노 강혜정 등 그 명성만으로도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일 연주자들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12.5.(금) '현을 위한 하루', 12.6.(토) '피아노를 위한 하루', 12.7.(일) '바흐를 위한 하루'라는 콘셉트로 구성된다.

개막 공연은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옥, 이지혜가 함께 하며 시벨리우스, 바흐, 차이콥스키의 명곡 외에도 트럼펫 연주자 성재창의 협연으로 네루다 트럼펫 협주곡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다음날인 12.6.(토)에는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쇼팽 4개의 발라드와 스케

르초 2번, 피아노 소나타 2번 등을 연주하며, 신박 듀오는 슈베르트 네 손을 위한 환상곡,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등의 곡을 통해 오스트리아 음악의 황금기를 여행하는 듯한 특별한 시간을 관객들에게 선물한다.

폐막 공연으로는 한국 바로크 음악의 중심에 서 있는 지휘자 김선아와 이성훈이 이끄는 남양성모성지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펼치는 바흐 B단조 미사가 음악제의 마지막 날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일시	12.5.(금) 19:00 <페스티벌 앙상블: 현을 위한 세레나데>
	12.6.(토) 14:00 <신박 듀오: 다뉴브의 추억>
	17:00 <임동혁: 이방인의 서사시>
	12.7.(일) 15:00 <문태국: 바흐 무반주 첼로>
	17:00 <미리 듣는 해설: 바흐 B단조 미사>
	18:00 <페스티벌 합창단&오케스트라: 바흐 B단조 미사>

장소 남양성모성지 대성당/소성당

가격 전석 1만 원(※12.7.(일) 17:00 해설 - 전석 무료, 18:00 공연 - 전석 2만 원)

대상 8세(초등학생) 이상

예매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가을밤을 수놓을 재즈의 향연 2025 화성재즈페스티벌

깊어져 가는 가을, 마지막 감성을 깨울 재즈의 선율이 화성의 밤을 물들인다. 지난 9월,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된 화성특례시 권역별 콘서트 <가을음악산책>에 이어 오는 11월 1일(토) 향남 도원체육공원에서 <2025 화성재즈페스티벌>이 다시 한번 시민들을 찾아간다.

연주자의 다양한 해석과 즉흥연주가 돋보이는 재즈는, 유연한 감성으로 매번 다른 감동을 전해주는 음악 장르다. 이번 재즈페스티벌에서는 이 같은 재즈의 매력을 모든 시민이 가까이서 느낄 수 있도록 국내 1세대 재즈 보컬리스트이자, 한국재즈협회장인 웅산을 주축으로 하는 웅산밴드가 헤드라이너로 참여하며, <슈퍼스타K 2>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대중의 사랑을 받은 김보경이 이끄는 네온밴드, 국내 블랙 가스펠의 역사이자 정수를 보여주는 그룹 헤리티

지의 보컬 바키, 여러 축제와 공연에서 재즈를 알려온 움 반 라인 라인까지, 국내 재즈계의 대표 뮤지션들이 관객들을 재즈의 세계로 초대할 예정이다.

풍성한 라인업이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전 좌석 무료 입장으로 진행되며,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가족·연인과 함께 편안한 감상을 원한다면, 행사장에 마련된 피크닉 존에서 돛자리와 담요를 챙겨 와 즐기는 것도 좋다.

일시 11.1.(토) 17:00
장소 향남 도원체육공원
상세정보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문의 미래전략TF(031-290-4646)



호수 위로 번지는 빛의 향연

2025 루나 빛 축제

도심 속 호수와 빛의 예술이 어우러지는 '2025 화성 루나 빛 축제'가 10월 25일(토)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동탄호수공원 운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루나 빛 축제는 화성특례시의 대표적인 야간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빛을 테마로 한 프로젝션 맵핑 전시와 빛 조형물 분수 쇼가 공원 전역을 수놓으며 환상적인 야경을 선사한다. 올해는 'Welcome to mars'를 콘셉트로 하여 코스튬 디스코 파티, 다채로운 빛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빛 주제 공연 및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가족 단위 관람객을 비롯해 남녀노소 누구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 중이다.

축제 현장에서는 루나쇼, 초청 아티스트 공연, 시민 참여형 이벤트 등이 운영돼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의 장이 펼쳐진다.



일시 10. 25.(토) 16:00 ~ 22:00

장소 동탄호수공원 운답원 일원

상세정보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문의 축제기획팀(031-290-4671)

※ 운영 상황에 따라 세부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October

● 공연
● 전시
● 축제
● 행사
● 기타

1	2025 화성예술지원 선정작 <비스듬히 본 도시, 비스듬히 그린 그림> 10.1.(수)~10.10.(금) / 갤러리 덕운 2025 화성예술지원 선정작 <Flat Series> 10.1.(수)~10.31.(금) / 무봉산 자연휴양림 산림자원체험관
2	[자유공간+] <화성 뮤지컬 살롱 'A-MU'> 12회차 10.2.(목) 19:00 / SCN아트홀
3	[자유공간+] <안녕예술정원> 10회차 10.3.(금) 17:00 / 파미라문지 2025 화성예술지원 선정작 <ing> 10.3.(금)~10.15.(수) / 서해랑 아트갤러리
4	2025 화성예술지원 선정작 <노작 홍사홍과 바호의 만남 '해설이 있는 음악회'> 10.4.(토) 14:00 / 노작홍사홍문학관
10	[자유공간+] <화성 뮤지컬 살롱 'A-MU'> 13회차 10.10.(금) 19:00 / SCN아트홀
11	[자유공간+] <화성 뮤지컬 살롱 'A-MU'> 14회차 10.11.(토) 13:00, 17:00 / SCN아트홀 2025 화성예술지원 선정작 <음악과 마음을 잇다> 10.11.(토) 14:30 / 염미술관 - 경기도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매항리, 평화와 희망의 문을 열다' RE: 매항 농성 여행 10.11.(토) / 고온항-농성, 매항리평화기념관 2025 화성예술지원 선정작 김지민 <어제의 새들과 가만히> 10.11.(토)~10.24.(금) / 예술공간 다움
12	- 경기도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매항리, 평화와 희망의 문을 열다' RE: 매항 농성 여행 10.12.(일) / 고온항-농성, 매항리평화기념관 2025 화성예술지원 선정작 김미정 <Micro-SVNR> 10.12.(일) / aT센터
14	2025 원로작가 열매정 초대전 <낯선자의 포에지> 10.14.(화)~11.30.(일) / 동탄아트스퀘어, 스페이스 - 미디어교육 견학 프로그램 <화미네투어> 진행 10.14.(화) / 화성시미디어센터
15	- 창극 <살로메> 10.15.(수) 19:30 / 반석아트홀 <기억과 희망: 이 땅의 평화의 씨앗> 10.15.(수)~11.30.(일) / 매항리평화기념관
16	- 창극 <살로메> 10.16.(목) 19:30 / 반석아트홀 - 미디어교육 견학 프로그램 <화미네투어> 진행 10.16.(목) / 화성시미디어센터
17	2025 화성예술지원 선정작 김류 <퀴베르네테스의 조타수> 10.17.(금)~10.30.(목) / 염미술관
18	[자유공간+] <문화풍당 풍화당+> 9회차 10.18.(토) 17:00 / 풍화당 - 반석산 피크닉: The Musical Concerto 10.18.(토) 17:00 / 동탄북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 <함께 부르는 오늘> 10.18.(토) 17:00 / 누림아트홀

- 경기도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매항리, 평화와 희망의 문을 열다' RE: 매항 생태 여행 10.18.(토) / 매항리평화기념관, 화성호 - 시민 기획 행사 <노작미로, 가을에 스며들다> 2회차 10.18.(토) / 홍사홍 문학거리 - 제부도 섀넌 콘서트 10.18.(토) / 제부도 매바위 광장 2025 화성예술지원 선정작 김나리 <THE COLORS> 10.18.(토)~10.27.(월) / 홀갤러리 2025 화성예술지원 선정작 <기억의 흐름> 10.18.(토) / 송림이음터	19	[자유공간+] <2025 이주 이야기 프로젝트> 15회차 10.19.(일) 13:00 / 발안시장 내 [자유공간+] <문화풍당 풍화당+> 10회차 10.19.(일) 16:00 / 풍화당
- 화성시예술단 로비콘서트: 엄마와 아기를 위한 오케스트라 10.20.(월) 11:00 / 동탄북합문화센터 [자유공간+] <2025 이주 이야기 프로젝트> 16회차 10.20.(월)~11.2.(일) / 발안시장 내	20	- 미디어교육 견학 프로그램 <화미네투어> 진행 10.21.(화) / 화성시미디어센터 2025 화성예술지원 선정작 <진시화: 그리움을 새기다> 10.22.(수)~10.29.(수) / 화성열린문화예술공간 제2전시실
[자유공간+] <2025 이주 이야기 프로젝트> 17회차 10.25.(토) 19:00 / 발안시장 내 - 경기도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매항리, 평화와 희망의 문을 열다' RE: 매항 농성 여행 10.25.(토) / 고온항-농성, 매항리평화기념관 - 화성 루나 빛 축제 10.25.(토) / 호수공원 일대 2025 생활문화 아트데이 10.25.(토) / 화성시생활문화센터	21	[자유공간+] <2025 이주 이야기 프로젝트> 18회차 10.26.(일) 13:00 / 발안시장 내 2025 화성예술지원 선정작 <베트남 민족 악기 공연> 10.26.(일) 16:00 / 화성별당어린이문화센터 아이누리극장 2025 화성예술지원 선정작 <Between Fact & Fiction: Live> 10.26.(일) 16:30 / 소다미술관 2025 화성예술지원 선정작 <달문 가요금프로젝트 "사계四季: 현의 이야기"> 10.26.(일) 17:00 / 달문아트센터
화성시예술단 로비콘서트: 어린이와 함께하는 국악 풍당 10.27.(월) 11:00 / 동탄북합문화센터	22	- 화성시생활문화센터 입주 창작자C 화성하다 <오늘도 공예비, 마음대로> 개인 전시 10.28.(화) 14:00 / 화성시생활문화센터 갤러리라이트 - 미디어교육 견학 프로그램 <화미네투어> 진행 10.28.(화) / 화성시미디어센터 <포스트 모던 요괴 연대기> 10.28.(화)~12.7.(일) / 향남북합문화센터
미디어교육 견학 프로그램 <화미네투어> 진행 10.30.(목) / 화성시미디어센터	23	[자유공간+] <와우리 공연예술축제> 8회차 10.31.(금) 18:00 / 와우리육상극장 2025 력저 콘서트 PART II <영화에 녹아 든 오페라> 10.31.(금) 19:30 / 반석아트홀

11 November

1	- 연극 <그레도 가족> 11.1.(토) 15:00 / 화성아트홀 [자유공간+] <와우리 공연예술축제> 9회차 11.1.(토) 18:00 / 와우리육상극장 [자유공간+] <2025 이주 이야기 프로젝트> 19회차 11.1.(토) 19:00 / 발안시장 내 - 경기도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매항리, 평화와 희망의 문을 열다' RE: 매항 생태 여행 11.1.(토) / 매항리평화기념관, 화성호 - 화성시 미디어 페스티벌 11.1.(토) 11:00 / 동탄북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 및 광장
2	- 연극 <그레도 가족> 11.2.(일) 15:00 / 화성아트홀 [자유공간+] <2025 이주 이야기 프로젝트> 20회차 11.2.(일) 13:00 / 발안시장 내 [자유공간+] <와우리 공연예술축제> 10회차 11.2.(일) 18:00 / 와우리육상극장 2025 화성예술지원 선정작 <별의 별국 "당신은 꽃이라네"> 11.2.(일) / 반석아트홀
3	2025 화성시 문화정책포럼 <AI 디지털 역량에 기반한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방향성 모색> 11.3.(월) 10:00~17:00 동탄북합문화센터 아크로공연연습센터 대연실 - 미디어교육 견학 프로그램 <화미네투어> 진행 11.3.(월)~11.27.(목) / 화성시미디어센터
8	Legend Pop Star <윤복희 콘서트> 11.8.(토) 17:00 / 화성아트홀
9	2025 화성예술지원 선정작 <연희 VIVE> 11.9.(일) 19:00 / 누림아트홀
11	2025 화성예술지원 선정작 <눈으로 읽는 기억: 흑(黑)·백(白) 건반 위의 무(舞)> 11.11.(화) 19:00 / 반석아트홀
13	2025 화성예술지원 선정작 <THE DAYS II> 11.13.(목) / 반석아트홀
18	2025 자유공간+ 성과공유전시 11.18.(화)~11.23.(일) / 화성열린문화예술공간 제2전시실
19	화성시 예술단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1.19.(수) 19:30 / 반석아트홀
22	2025 병점문화축제 '말하는대로' 11.22.(토) 11:00 / 병점역 앞남광장
23	2025 꿈의 무용단 제2회 정기공연 11.23.(일) 14:00 / 반석아트홀
26	2025 력저 콘서트 PART II <소설 속 클래식> 11.26.(수) 19:30 / 반석아트홀
28	화성시 예술단 국악뮤지컬 <탈필과 미필> (테스트 공연) 11.28.(금) 19:30 / 화성예술의전당
29	김영옥X클래지움우주지름서클 <8 Seasons> 11.29.(토) 17:00 / 반석아트홀

12 December

5	화성특례시 남양성모성지 클래식 음악제 <페스티벌 앙상블: 현을 위한 세레나데> 12.5.(금) 19:00 / 남양성모성지
6	화성특례시 남양성모성지 클래식 음악제 <신박 듀오: 다뉴브의 추억> 12.6.(토) 14:00 / 남양성모성지 <임동학: 이방인의 서사시> 12.6.(토) 17:00 / 남양성모성지
7	화성특례시 남양성모성지 클래식 음악제 <문태극: 바호 무반주 첼로> 12.7.(일) 15:00 / 남양성모성지 <미리 듣는 해설: 바호 B단조 미사> 12.7.(일) 17:00 / 남양성모성지 <페스티벌 합창단&오케스트라: 바호 B단조 미사> 12.7.(일) 18:00 / 남양성모성지
20	발레 <호두까기 인형> 12.20.(토) 14:00, 18:00 / 화성아트홀
27	금난세&남양시립교향악단(테스트공연) 12.27.(토) 17:00 / 화성예술의전당
31	화성예술의전당 개관기념식&제아문서트 12.31.(수) 21:00 / 화성예술의전당



《화분》여름호를 읽고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의견입니다.

어디에서 《화분》을 만나셨나요?

우편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항상 반갑고 즐거워요. 이 친구를
만나는 순간은.

이번 호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

④ 좋지 않다 ⑤ 매우 나쁨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거나 좋았던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무해한 것들에 끌리는 이유’

우리들은 결국 편안함 속에서 안정을
취하고 싶은 거겠죠.

다음 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1년 중 가장 운치 있는 가을이 오고
있네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멋진
화성을 알려주세요.

《화분》편집부 또는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책이 작아져서 참 좋아요. 환경적으로,
편리함에 있어서도 작은 사이즈가
월등히 이득인 것 같습니다. 화려함을
덜어내고 더욱 알차진 《화분》, 언제나
응원합니다! 재단에 감사와 응원을
전해드립니다. :)

어디에서 《화분》을 만나셨나요?

나만의 휴식처 봉담도서관

이번 호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

④ 좋지 않다 ⑤ 매우 나쁨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거나 좋았던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화성 궁평항으로 떠나는 ‘무해한’ 힐링
여행’

다음 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우리 고장 전통 농악대 유래 탐방

기재글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분》편집부 또는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화성에서 오래된 문화 유적지와
예술인 기재 바랍니다. 늘 화성시를
위해 빛내주신 문화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어디에서 《화분》을 만나셨나요?

봉담도서관

이번 호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

④ 좋지 않다 ⑤ 매우 나쁨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거나 좋았던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무해한 것들에 끌리는 이유’,

‘덜 해로운 사람’

다음 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영화 소식을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화분》편집부 또는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수고에 감사드리며, 잘 읽고 있습니다.

시민 독자 투고란도 만들어주세요.

어디에서 《화분》을 만나셨나요?

봉담도서관

이번 호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

④ 좋지 않다 ⑤ 매우 나쁨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거나 좋았던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좋은 사람, 좋은 우리 음악’

다음 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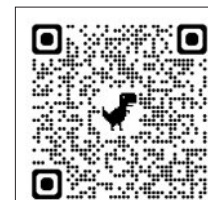
가을에 가기 좋은 화성시를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분》편집부 또는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화성시
도서관 탐방기를 연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화분》독자 만족도 조사



《화분》은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더욱 의미 있는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QR코드 스캔 후 설문 조사에 응답

설문기간 2025년 11월 23일까지

당첨발표 2025년 11월 25일(개별 연락)

place

《화분》은 아래 장소에서 무료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운영하는 곳에 《화분》을 놓아두고 싶은 분은 031-8015-8112로 문의 주세요.

배포처

동탄복합문화센터
화성시미디어센터
화성시생활문화센터
화성아트홀
반석아트홀
누림아트홀
화성열린문화예술공간

도서관

동탄다원이음터도서관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왕배푸른숲도서관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등지나래어린이도서관
봉담도서관
병점도서관
삼괴도서관
서연이음터도서관
송산도서관
송린이음터도서관
정남도서관
진안도서관
태안도서관
노을빛도서관

작은도서관

샘내작은도서관
기아행복마루도서관
비봉작은도서관
마도작은도서관
팔탄작은도서관
양감작은도서관
호수나무작은도서관

문화시설

노작홍사옹문학관
화성ICT생활문화센터
모두누림센터
유엔아이센터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반도문화재단 아이비라운지
소다미술관
엄미술관

카페

다락
다원
달팽이그림책카페
손커피연구소
차마시는뜰
카페오카페
카페 라온트리
디안
섹션
프라하

호텔

라비돌리조트
푸르미르호텔

기타

독립서점 모모책방
갤러리문화아지트
신자연주의공방
공방 7보다
서울건치과
서해랑 제부도해상케이블카

《화분》은 웹진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hwaboon.hcf.or.kr



화성시문화관광재단
SNS에서
재단 소식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홈페이지



블로그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독자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 동탄북합문화센터 3층
경영기획본부 기획조정팀 <화분> 담당자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발행하는 문화·예술 교양지 《화분》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엽서로 보내주신 내용은 더 좋은 《화분》을 만드는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답변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1. 어디에서 《화분》을 만나셨나요?

2. 이번 호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 ④ 좋지 않다 ⑤ 매우 나쁨

3.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거나 좋았던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4. 다음 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5. 《화분》편집부 또는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화분》독자만족도 조사

스마트폰의 카메라 앱을 이용해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화분》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